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성가소비녀회 마크는 예수·마리아·요셉을 상징한다.
첫째 기둥 J는 예수(JESUS), 가운데 M은 성모 마리아(MARIA)
둘째 기둥 J는 요셉(JOSEPH)을 형상화한 것이며, 원은 수도 공동체를 뜻한다.
하느님의 종들로서 구원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신
예수·마리아·요셉을 본받는 소비녀(小婢女, 작은 여종)들의 삶을 의미한다.

소 비 녀

우주적 강생을 살아가는



소 비 녀

우주적 강생을 살아가는





46억 년 동안 그저 생명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어주지만 한 지구,
 그의 강생을 알아보지 못한 인간들에 의해 상처받고 병든 지구,
 그 지구와 함께 앓는 일.

생명을 날기 위한 산고의 고통처럼 지구와 함께,
 지구 안에서 더불어 앓고 있는 소비녀들,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점점 잃어가는 지구 곁에서

나지막한 등불 하나를 켜는 것이 소비녀들의 작은 강생 하나가 아닐까요?



2018 34호
 우주적 강생을 살아가는

소
 비
 녀

영원으로부터.....

- 05 소비녀들에게 묻다! '우주적 강생'
- 09 '한 처음'부터 계속되는 우리들의 이야기_ 이 사도요한 소비녀
- 16 '우주적 소비녀'의 작은 날개짓_ 최 바오로 소비녀

지금까지....

- 22 진정한 '선교사들'의 강생 축제_ 이 마리아콜베 소비녀
- 24 753610 강생 축제 스케치
- 30 기억하라, 축복하라, 희망하라, 소비녀!_ 이 프리스카 소비녀
- 32 여기에, 지금 부러진 소비녀 씨앗들

다양하게 서로 연결된...

- 38 토종종자의 중요성과 그 삶_ 백 엠마 소비녀
- 44 인터뷰_ 서 마리로사 소비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 52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인 나에게 돌려라!"_ 이 벤자민 소비녀
- 59 내가 만난 우주적 강생_ 첫서약 소비녀들
- 60 ☆ 그 빛은 늘 하느님의 자리를 지키네_ 강 한나 소비녀
- 64 ☆ 구원의 여정에서 만난 우주적 강생_ 계 베드로 소비녀
- 66 ☆ 나를 키워 준 어머니의 땅 배론_ 김 시우알렉시오소비녀
- 70 ☆ 일상에서 만난 강생의 기쁨_ 박 막달레나 소비녀
- 72 ☆ '사랑'이라는 새로운 기억_ 장 예수의 아나뵘 소비녀
- 76 ☆ 빛으로 이어지는 긴 터널_ 전 미리암 소비녀
- 80 ☆ 하느님 창조물과의 '어울림'_ 홍 파니비노 소비녀
- 83 영혼의 쉽표: 청년 예수와 함께 하는 떼제기도 모임
- 84 내 신앙 생활의 나침반: 꽃숨 청년기도 모임_ 이서연 베로니카



표지사진

2018년 9월 13일 753610 강생 축제 오프닝 공연 중 유기서약자들의 퍼포먼스, 지구를 품에 안고 있는 소비녀의 강생 하나.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벽에 가로막힌 지구를 감싸 안은 소비녀의 두 팔을, 그의 온 존재를 어떤 것도 거두어낼 수 없습니다. 설령 죽음의 벽에 가로막혀 함께 죽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소비녀는 지구를 품에 안은 그 강생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경이로운..

- 89 소비녀들

영원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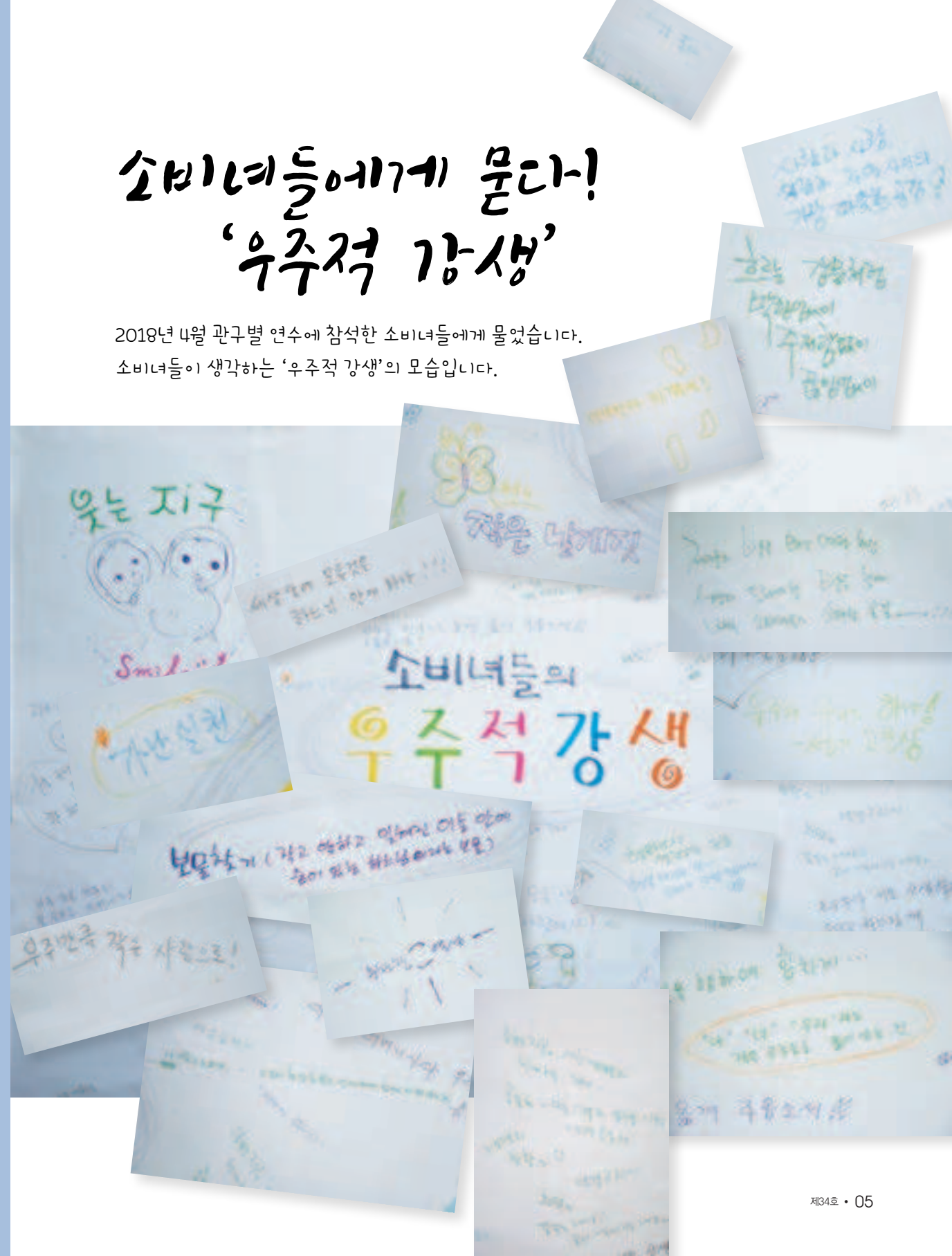


+ 이미지 설명 : 나선 은하 상상도 + 출처 : <http://www.cgmeetup.net/home/making-of-cosmos-a-spacetime-odyssey/>

소비녀들에게 묻다! '우주적 강생'
'한 처음'부터 계속되는 우리들의 이야기_ 이 사도요한 소비녀
'우주적 소비녀'의 작은 날개짓_ 최 바오로 소비녀

소비녀들에게 묻다! '우주적 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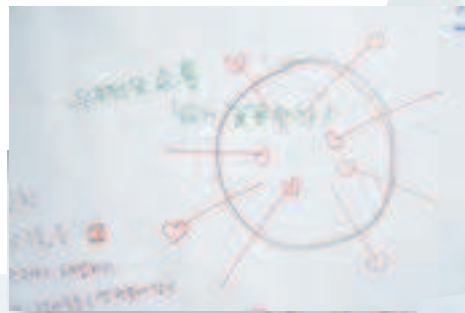
2018년 4월 관구별 연수에 참석한 소비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소비녀들이 생각하는 '우주적 강생'의 모습입니다.



너와 나
우리는 나이가 다른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너 나 우리 그리고 우주와
함께 소통하는 감정을 나누면서
우리를 살아 가는 것이 소비의
감정이다.

낙감이야
다양



사랑은 눈으로
바라보기



소녀의 우

사랑이란 감정
사랑=은 동등함 → 기쁨= 행복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고리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마음

우주적 감정의
소녀의 강



우주 간혹은 참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한 마음



가장 좋은 내 부터 시작이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이다

별이 온 우주는
수많은 사랑의 감정을
그리워 하는 마음
함께 사랑: 카운 - !!



사랑에게 내려가는
동심물에게 내려가는
만수에게 내려가는 우주적 감정

고유함 + 다양성
일치 (연결)

사랑이란 감정
사랑=은 동등함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

“하느님은 두 가지 동기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당신 영광의 계시와 당신 좋으심의 계시입니다.

우주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원한 영광의 한 줄기 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매력과 품위와 아름다움을 받아 지녀서

마치 하느님의 얼굴에서 직접 나오는 찬란함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설립자 성재덕 신부, 「수도자 피정과 영성강의」, 313쪽 -

우주, 하느님의 거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순히 물질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느님의 거울입니다.

당신 속성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창조물에서 출발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까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관상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일치로 돕는 새로운 방법이 됩니다.”

- 설립자 성재덕 신부, 「수도자 피정과 영성강의」, 311~312쪽 -

+ 이미지 설명 : 나선은하 측면 상상도 + 출처 :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다큐멘터리 <코스모스> (2014) 중 화면 캡처

‘한 처음’부터 계속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 사도요한 소비녀



“우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이다.
우리가 잠겨있고, 우리가 속해 있으며,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깨우는 힘을 갖고 있다.
마치 은하수가 은하의 모습을 한 우주이고,
난초가 꽃의 모습을 한 우주인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우주이다.”

- 『우주 속으로 걷다』中 -

우주, 우리의 여정

‘우주’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키클롭 밤하늘 은하수의 향연과 반짝이는 별

들, 또 누군가는 복잡한 수학 수식이나 과학 또 누군가는 E.T를 닮은 외계인과의 만남과 우주선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주를 생각하면 저 멀리 지구 밖의 것들이 우선 떠오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 나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안드로메다 별나라 이야기쯤으로 말이죠. 그래서인지 ‘우주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면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주의 시작과 진화 - 137억 년 우주의 역사, 46억 년 지구의 역사 -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만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궁극적 신비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주 이야기’에는 바로 우리의 여정, 나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 처음’의 시작

우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는 동아리 ‘한 처음’은 2017년 12월에 <우주 속으로 걷다(Journey of the Universe)>라는 다큐 영화를 함께 보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주 이야

기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 시대가 마주한 전례 없는 생태적 재앙과 문명의 위기 앞에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한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우주 이야기』

미국 예수고난회 사제이자 문화사학자 토마스 베리(1914~2009) 신부님께서 1992년 『우주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하셨었고, 20년이 지난 2012년에 베리 신부님의 대표적인 두 제자, 브라이언 스윙(진화하는 우주를 연구한 수리물리학자) 메리 에블린 터커(예일대 산림환경대학원과 신학원 교수)가 『우주 이야기』 내용을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Journey of the Universe'라는 원제의 책과 영화를 만들었습니다.(국내 번역서 『우주 속으로 걷다』, 내 인생의 책, 2012)

『우주 이야기』는 토마스 베리 신부님과 브라이언 스윙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베리 신부님은 이 책에서 역사학적 해석 방법

론을 사용하여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찰한 후, 현대의 생태계 위기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베리 신부님은 지구와 인간의 왜곡된 관계를 출발점으로, 생태계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온 인간 중심적, 기계론적 세계관과 현대 문명의 위기로까지 이어진 전 과정을 통찰하였습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 영적 에너지를 파멸'시키고 있는 현상의 원인,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종교와 과학의 역사적 맥락에서 찾았는데 이를 통합한 '새로운 우주 이야기'를 주창하였습니다¹⁾.

우주, 진화하는 하나의 과정

많은 분들이 갖는 우주 이야기의 첫인상과 달리 새로운 우주 이야기는 단지 물리적 차원에서 우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과학, 역사 그리고 종교를 아울러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지구(우주/자연)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처음으로 우주와 지구의 여정에 대해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진화 과정에서 인간 또한 우주와 심오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단지 저 멀리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화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느님 창조의 역사이며 실제로 우리들 자신의 여정입니다. 태초에 찬

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던 우주의 시작, 지구의 탄생, 생명의 탄생과 성장, 인간 의식의 진화와 인류 문명 등을 살펴보면 우주와 지구와 인간은 창조적이며, 다시 반복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여정의 한 부분들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우주는 단 한 번의 화려한 축제인 것입니다. 우주는 은하와 별, 행성과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상호의존적'인지를 과학적 관점에서 영감을 주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생명의 구조에 얽여져 있는지도 느끼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한 처음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던 사랑의 손길, 그 따스한 숨결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합니다. 하느님의 창조와 분리되고 모든 피조물들을 소유하고 착취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며 지내 온 지난 시간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별, 우리의 고향

하늘을 보면서 이마를 한 번 만져 보십시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저 별에서 온 거라면 믿을 수 있을까요? 별의 중심부는 매우 뜨겁습니다. 몇 백만도도 넘으니까요.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그렇게 별에서 새로운 원자들이 생겨나고 그 원자들이 천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죽는 별들도 생기고(초신성 폭발) 일부는 떨어져 나가는 별들도 생겨납니다. 그럼 별 속에 있던 원자들이 우주 속을 헤매이게 되지요. 어떤 것들은 우리 지구를 이루는 물질 속에 들어가, 땅을 움직이거나 바다 속을 여행합니다. 이 원자들은 생명체에도 들어갑니다.

원소가 몇 개나 될까요? 지구상에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물질들을 이루는 구성 원소는 자연계에서 확인되는 원소기호 98번 칼리포르늄까지입니다²⁾.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백 개가 안되는 원소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죠. 그 원소들의 고향이 바로 저 별들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³⁾도 저 별들에서 왔으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향도 별들입니다.

인간은 우주와 지구의 여정에서 가장 늦게 출현했지만, 우리 역시 인간의 모습을 한 '우주'

1) 토마스 베리·브라이언 스윙, 『우주 이야기』, 맹영선 옮김(서울 :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417-8쪽.

2) 2003년 이후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소의 수가 92개(92번 우라늄)인지 98개인지는 아직 일치되지 않고 있으나, 보통 98개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원소들 중 일부가 너무 빨라 붕괴되어 검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전체 원소 개수는 118개이지만 이론상으로 137개까지 가능하며, 104번 이후는 실험실에서 핵분열로 생성이 가능하다.

3)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대략 60가지로,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96%이고, 그 외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아연 등의 무기물(mineral)이 있다.



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별의 존재를 관찰하면서 밤하늘의 무한함으로부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기 인생의 여정이 별빛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랜 우리의 직관을 이제는 과학의 언어로 다시 확인합니다. 『코스모스』의 저자이기도 한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 인간은 모두 별빛을 쏟아냈던 별가루로 만들어진 단일 종족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별을 다시 본다면 아마 어제와는 다른 특별한 별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각자는 그야말로 진정한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우주, 하나의 근원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 원소들은 다시 또 다른 생명체, 즉 식물이나 동물을 구성하는데 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지구상의 생명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다시 어딘가에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의 분자 단위뿐만 아니라 내 몸을 꾸려가는 기본 원리도, 살아 있는 세상의 모든 나머지와 함께 같은

원리로 돌아가며 함께 호흡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근원에서 왔기에 모든 피조물은 단일한 생명공동체의 부분이며, 무수한 다양성 안에서 살고 있지만 본질적인 수준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 줍니다. 교종 프란치스코께서도 「찬미받으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원자와 소립자조차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구성 요소들이 서로 관계되듯이, 생물종도 우리가 결코 그 전체를 알고 이해할 수 없을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찬미받으소서」, 138항 -

우주, 의식의 확장

우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는 내가 한 개인, 한 나라의 국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정체성을 깨닫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의식이 있고 살아서 지속적으로 창조되는 유기체라면, 인간은 온 우주가 심오하게 축소 디자인된 지적 생물 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우리를 둘러싸고 지탱해 주는 살아있는 우주처럼 우리도 숭고하고 장엄하며 신비하다는 새로운 확신을 줍니다⁴⁾. 내가 바로 지구이

고, 곧 우주라는 의식의 확장은 이 땅이 내가 이전에 살던 곳과 다름이 없을지라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계속되는 여정의 일원으로서, 현재 인간이 지구에 가하는 파괴적인 행태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은 시급합니다. 우주 이야기는 우리의 세계관이 우주적인 맥락에서 확대되길 요청합니다.

지난 몇 달간의 나눔을 통해 우리는 우주가 단순히 지구 밖의 공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던 하느님 창조의 여정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한히 먼 별들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망원경과 무한히 작은 세포와 원자들까지 보게 된 현미경을 통해 우리들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느님의 사랑이 과학의 눈을 통해 우리 앞에 분명한 계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주, 살아있는 성체

또한 우주와 지구, 생명, 인간의 출현과 의식의 진화로 이어지는 여정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퍼져가는 강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수회원이자 고생물학자였던 페이아르 드 샤프랭 신부님(1881~1955)은 나자렛 예수님의 강생을 우주 전체의 진화단계 안에서 설명하셨는데, 하느님께서 물질 안으로 들어와 육화하심은 단지 생물학적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종 수렴점은 오메가 포인트(Omega point)로서 세상과 우주 안에 역동적인 사랑의 순환을 가능케 하는 인격적 중심이 존재함을 말하며, 이를 그리스도교 계시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나자렛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강생은 우주적 신화(神化)를 위한 결정적 사건이며, 신성화된 우주를 그리스도 자신에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⁵⁾. 예수님은 하느님의 충만함과 인간의 충만함, 양쪽 모두의 체험이시기에 양쪽의 실재가 하나로 모여 들어 인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⁶⁾. 그러나 라이몬 파니카의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는 나자렛 예수와 완전히 동일시 될 수 없다.”는 말처럼⁷⁾,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를 넘어서는 실재입니다. 페이아르 샤프랭 역시 인격적 실재인 예수이면서도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그리스도는 우주 전체로 확장되는 우주적 몸을 가지고 있다.(Christ has a cosmic body that extends throughout the universe)”⁸⁾고 말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강생은 이 땅의 하느님 육

4) 정홍규, 『평화생태이야기』, (서울: 바오로딸 출판사, 2010), 68쪽.
5) 박준양, 「20세기를 빛낸 신학자들 - 피에르 페이아르 드 샤프랭(중)」, 평화신문, 8쪽.
6) 주디 카나토, 『자비로움』, 이정규 역,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2015), 85쪽.
7) 같은 책, 86쪽.

화사건이면서도 한 처음부터 세상 만물이 깊은 친교(communion)로 연결되어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주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성체입니다⁹⁾.

“하느님께서 우주 안에 강생하십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강생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강생 안에 있지 않으시다.

그는 강생으로써 그 분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나무로서 나무에서,

동물로서 동물 안에서, 사람으로서 사람 안에서,

그리고 천사로서 천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것들은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느님이 피조물이 아니다.

하느님은 각각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지만

또한 그는 그것들 자체는 아니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개개의 피조물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지치지 않으시며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신다.

이것은 분명 신비한 경험이다.

신비주의자는 우주로 의미 있는

하느님의 계시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우주를

마치 문맹인이 시를 읽는 것과 같이 여긴다.

그들은 개개 글자 수나 단어는 세지만,

시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다.”

- 「현대를 위한 신비주의」中 -

우주, 하느님의 성가정

우주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우주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집 ‘우(宇)’와 집 ‘주(宙)’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주는 우리들 모두의 집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하느님 강생의 자리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주 안에서도 푸른 별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리들 공동의 집입니다. 집에 함께 부대끼며 사는 이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지만 저 박테리아부터, 물고기, 새, 꽃, 나무, 곤충, 이끼, 돌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의 우주적 가족¹⁰⁾이 되겠지요. 한발 더 나아가 이 우주와 지구가 하느님의 성가정(Holy Family)이며, 우주적 가족들 모두가 확장된 우리들의 신비체 가족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처음’, 열린 모임

‘한 처음’ 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린 모임으로 양 관구, 꽃숨 청년, 성소자에 이르기까지 매번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서로 안의 움직임에 대해 편안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와 진화의 여정 안에서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느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져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8) Teilhard de Chardin, Cosmic Life XII, 58쪽.

9) 베네딕토 16세 교종의 2009년 7월 24일 저녁 기도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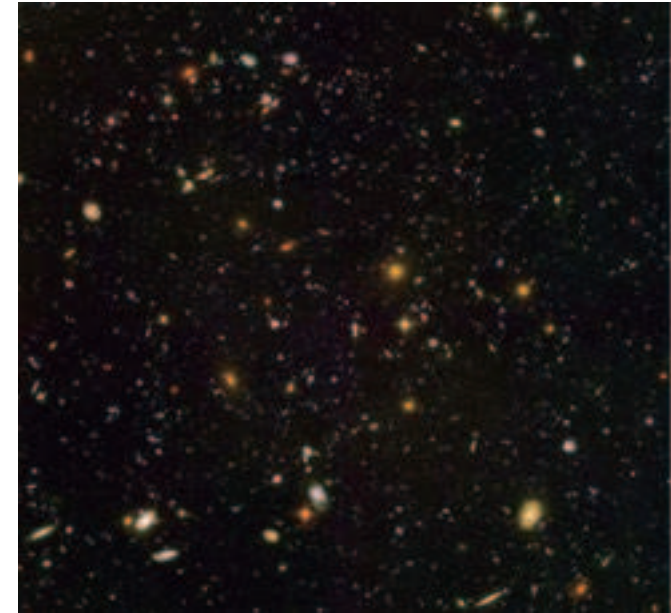
10) Willigis Jäger, 『Mysticism for Modern Times』, 2006.

10) 프란치스코 교종, 『찬미받으소서』, 89항.

“우주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성광과 같은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흠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 설립자 성재덕 신부, 「수도자 피정과 영성강의」, 313쪽-

우주, 하느님의 공간



사진에 보이는 점 하나가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 하나 안에는 약 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다고 하네요.

우주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별이 나올 확률은 4%에 불과하고,

코스모스의 대부분은 텅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76억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한데,

지구보다 크고 작은 행성들이 무수히 모여있다는 은하들마저도 점처럼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하느님의 공간인 우주의 깊이와 너비를 헤아려봅시다.

그 하느님께서 강생하신 여기, 지금!

우리 인류의 인간 중심성과 나 자신의 자아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의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지금,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은 어디로부터 오게 될까요?

+ 칼 세이건(1980), 『코스모스』, 흠송수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38쪽.

+ 이미지 설명: 관측가능한 우주 138억 광년의 초은하단

+ 출처: https://www.nasa.gov/vision/universe/starsgalaxies/hubble_UDF.html



경주 대지진 1년 기자회견

‘우주적 소비녀’의 작은 날개짓

최 바오로 소비녀

‘우주적 소비녀’로의 부르심

청원기 시절 ATD(Awakening the Dreamer)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다. 그전에는 별로 떠올려본 적도 없는 ‘우주’,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거대하기도 모호하기도 한 그 말이 나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처럼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나 자신’으로, 나 자신이 바로 ‘또 하나의 우주’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청원기 나의 소명은 ‘우주적 소비녀’가 되었다.

다소 거창하게 들리는 ‘우주적’이라는 이 말은 나비효과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소비녀’와도 잘 어울린다. 소비녀의 그 작음을 통해 우주만큼 아니 우주보다 더 크신 하느님을 드러내기에 소비녀의 그 작음 안에 항상 우주가 함께한다. 과거

에도 수도회 초창기에도 우주적 소비녀들은 존재했다. 우리 모두는 우주적 소비녀다.

영성에 목마른 시대

우주적 소비녀로서 첫발을 내디딘 곳은 교회 밖 환경운동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였다. 이곳이 교회 안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환경운동가들에게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파급효과는 대단했다. 교황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신자가 아님에도 직접 회칙을 사서 읽었다는 활동가들을 종종 보았다. 아마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대 자본 권력과의 싸움에서 든든한 내 편을 얻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처음 가던 날 “우리(환경운동)는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느 활동가가 떠오른다. 교회 밖에서도 영성은 목마르다.

거절할 수 없는 하느님의 요청

2018년 여름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



소비녀 JPIC 탈핵동아리 방문

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가뭄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가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지구를 회복하는 해결책으로 공동선을 기반으로 한 ‘생태적 회개’를 제안한다.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환경위기는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생태적 회개는 예수님과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찬미받으소서」, 217항 -

우주, 창조적 진화

16차 수도회 총회 첫 번째 의안 ‘원형구조’와 환경운동 NGO의 비전 ‘생태민주주의’는 서로 닮은 꼴이다. 수도공동체의 창조적 진화는 원형구조를 촉발시킨다. 민주주의의 창조적 진화는 생태민주주의를 꽃피운다. 기존의 한계와 문제점들은 창조적 진화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생태민주주의는 의사결정권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그리고 인간 이외 다른 생명 존재들의 필요와 요구들을 민주주의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생태학



활동가들과의 회의

적 도전이다. 수도공동체의 원형구조 또한 이와 유사한 도전들의 연속, 빅뱅으로 탄생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는 이렇게 우주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지구에 남기는 우주적 소비녀의 발자취

수도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세상이 원하는 ‘새로운 수도자 상’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소통’과 ‘협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느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하느님과 협력하며 이웃과 협력한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거들 수 있는 것들을 거둔다. 주어지는 상황과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니 나의 계획과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성실을 다한다. 그것이 세상 안에서 발전한 ‘우주적 소비녀’의 발자취다.



“내가 ‘신교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원하는 이유” 기자회견

작은 나비의 날갯짓

올해 초 환경운동 NGO의 신년하례식에서 한 공동대표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 속 환경운동의 모델'을 시대의 긴급한 요청으로 제안했다. 환경운동가들은 국내외의 굵직한 환경 현안에 즉각적인 대응과 정책적 접근을 하는 이들이다. 내게는 그 말이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작은 것에 더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와닿았다. 그래서인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 수녀원이야말로 그런 모델을 시작하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환경운동가들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것이 하느님 창조질서 회복을



관구 설립 10주년 기념
전 회원 성지순례 기념품 장바구니

위한 '작은 비녀들의 작은 실천'이니 말이다. 그 작은 실천을 모아 위기의 지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거리 행진용 희망 탈핵 나비

나비효과! 세상 속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먼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강생 '우주적 강생'이라고 생각한다. 영성에 목마르다 하는 이 세대에 소비녀들이 숨어있는 작은 행동으로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살아있는 영성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선(善)을 퍼뜨려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노력은 때로 눈에 잘 띄이지 않지만
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선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찬미받으소서」, 212항-

우주, 지속가능성과 상호연결성

1년여간 환경운동 NGO에서 지내면서 주변 활동가들로부터 “이곳의 1년이 지난 뒤 수녀



원에 돌아가면 무엇을 하게 되나?”라는 질문을 받곤 했다. 앞으로의 길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질문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경험을 꼭 이어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소비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 및 지속 가능 개발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193개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제다. 인류 번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의 정책 목표다.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외환위기 극복, 2000년대 국제무대 도약 등 그간의 여러 발전 경험을 모아 최근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유엔 SDGs를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몇 십년간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나아가 할 길과 국가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 우리 수도회 또한 시대별 강생의 경험을 모은 '소비녀들의 우주적 강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LSHF-SDGs)'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구의 주소

지구 < 태양계 < 우리 은하 < 처녀자리 초은하단 < 국부은하군 < 관측 가능한 우주 138억 광년



저 작은 동그라미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 행성이 8개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저 작은 점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태양계는 나선형 은하인 우리 은하의 나선팔 주변, 중심이 아닌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한바퀴 도는 데는 약 2억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주적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칼 세이건의 질문처럼 단지 70년 밖에 살지 못하는 생물에게

2억 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인류는 처음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지구도, 태양계도, 우리 은하도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과학의 도움으로, 인간 의식의 진화로 새로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지금으로서는 138억 광년이지만,

우주의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더 멀리 관측할 수 있게 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지구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주는 무한하고 광막하다고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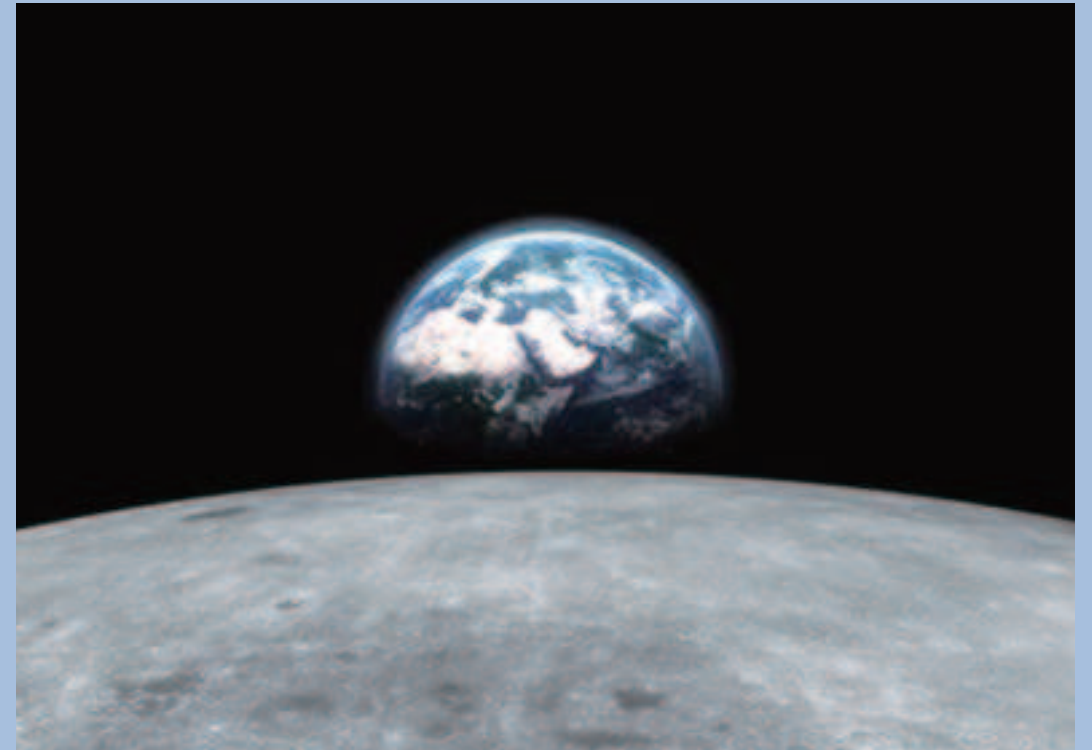
너무 어마어마해서, 감이 잡히지 않는 우주의 공간과 시간이

소비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초대로 느껴지시나요?

우주적 차원의 강생을 고민하는 소비녀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을까요?

+ 이미지 설명 : 우리 은하 안에서 태양계의 위치 + 출처 :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다큐멘터리 <코스모스> 화면 캡처

지금까지....



+ 설명 : 1968년 12월 24일 아폴로 8호의 우주비행사 윌리엄 앤더스가 달 탐사중 찍은 '지구돋이' 사진
+ 출처 : <https://www.factinate.com/things/32-relatively-special-facts-physics/4/>

진정한 '선교사들'의 강생 축제_ 이 마리아콜베 소비녀

753610 강생 축제 스케치

기억하라, 축복하라, 희망하라, 소비녀!_ 이 프리스카 소비녀

여기에, 지금 부러진 소비녀 씨앗들



진정한 '선교사들'의 강생 축제

이 마리아콜레 소비녀

2018년 9월 회원연수에 이어 동남아 국가에서 소임하는 모든 회원들의 첫 모임이 총원에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은 낯설었지만 마음속에서 설렘이 일어났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에게는 공동체와 사도직 활동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고국에 있는 준비된 수녀님들께 보내야 하는 미션이 생겼다.

우리 공동체는 기존에 찍어 둔 사진과 동영상상을 편집하여 만들기 하였고, 부족한 부분의 사도직 활동 모습을 담기 위해 나는 반나절 동안 그레이스 수녀님을 따라 다니며 방문간호 현장을 찍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주로 성당 안에 머물면서 성당 부속 '테레사 유치원'의 일을 도왔다면, 그레이스 수녀님은 우리가 정착한 바탐방 교구 접나옴 마을에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성당 가까운 곳부터 상당히 먼 지역까지 부지런히 다니며 마을의 가정들을 보살피고 계셨다. 가난한 가정을 돕고 있는 수녀님의 모습을 현지인들은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다. 단기간의 방문일정으로 물질적인 것만을 나눌 수 밖에 없는 외국인 '후원'에 익숙해진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국인이지만, '이웃'으로 존재하면서 성당을 지키고 있는 '수도자'로 인식되는 것 같다.



캄보디아의 가톨릭 문화 및 이러저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지인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마을에 매우 드물게 교우촌이 형성된 데다가, 역사적으로 순교자가 나온 마을이라는 사실이 다른 마을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가정 방문'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방식이 우리 수도회의 고유사도직 중의 하나임을 피력하는 편이다. 그래서 오래전 사베리오 수녀님을 따라다녔던 수련기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 정신이 지금 수녀님의 활동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고자 하였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우리가 그리운 고국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총원에 도착했던 날은 회원연수 시작 하루 전이었다. 이미 천막이 준비되어 있고 각 나라별로 천막은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소비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나로서는 입회 후 처음 보는 색다른 모습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서로 서로 도와가며 모든 천막을 다 준비하였고, 이튿날 많은 수녀님들이 연수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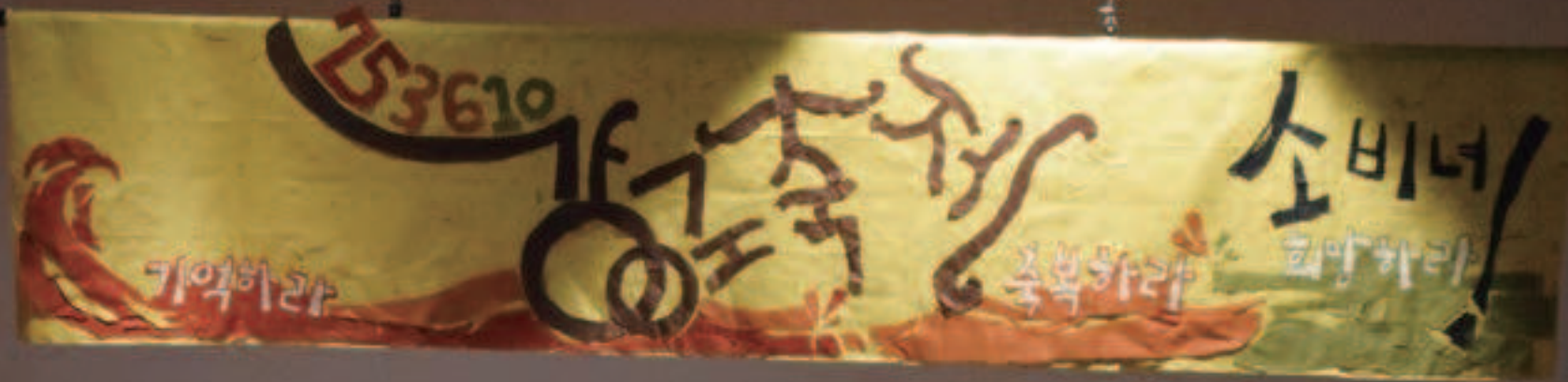
이번 연수는 남미,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소임하는 소비녀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기도 하였고, 또 막상 일상의 삶이란 어디나 비슷하구나 하는 생



각도 갖게 하였다. 전회원 연수를 마치고 이어 며칠 동안 동남아 지역에서 소임하는 회원들의 전체 회의가 계속되었다.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진정한 의미 있게 만든 것은 마지막 날 역사전시실을 함께 관람한 것이었다. 며칠 동안 장시간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는 시간들의 종착점이라고나 할까.

설립자 신부님의 발자취가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마치 살아 있는 목소리로 눈앞에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리되지 않던 마음들이 분명해지고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말씀이 잔잔히 내 마음을 적셨다.

나는 9월 회원 연수부터 시작하여 8일간 지속된 모든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이런 비유를 들어보았다. '생각'을 모으고 '기획'을 하고 '극본'을 쓰고 '무대'를 만들고 '연출'을 하고 그리고 그 무대에 초대된 소비녀는 맡겨진 역할을 하였다는 것. 그런데 그 연기는 '허구'가 아닌 '진실'이었다는 것. 다양한 역할을 통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였고, 그 작품을 준비한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대를 채운 주인공들의 삶이 결코 '연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강당 벽에 걸린 사진 중 무엇 하나도 '허구'는 없었던 것처럼! 모든 회원이 바로 지금의 자리에 파견된 진정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이었다.



753610
축하 스캐치







기억하라, 축복하라, 희망하라, 소비네!



수도회설립 75주년, 해외선교 36주년, 관구설립 10주년 기념

“오늘 내가 너 소비네를 낳았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소비네 공동체를 낳았노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이 된 날에 너희 또한 낳았노라. 이는 너희들, 소비네 공동체의 생명이 곧 강생하신 하느님, 곧 사랑임을 늘 기억하라는 뜻이다.”

오늘 설립자 탄신일을 맞아 소비네 전체가 한 데 모여 축제를 지내게 됨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설립자이신 관상적이고 예언적인 선교사 성 신부님을 비롯하여 소비네 천상가족 모든 분들도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설립 75주년, 해외선교 36주년, 관구설립 10주년을 기억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현존을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설립자 신부님께서 “성가소비네회 역사는 순전히 예수 사랑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강물을 막는 자는 앙화라고도 하셨습니다.

1943년 성재덕 신부님을 통하여 세상에 탄생한 성가소비네회는 75년 동안 ‘예수 강생’이라는 하느님 사랑의 생명줄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

니다. 세상과 함께 하는 소비네 공동체의 강생은, 때로는 높은 언덕을 넘었고, 때로는 땅바닥까지 주저앉고, 때로는 평탄한 오솔길을 즐기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강생의 생명줄은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아서는 살 수 없는 소비네 개인과 공동체의 생명줄입니다.

하느님께 그 원천을 두고 있는 ‘강생의 생명줄’은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새로운 강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강생의 길이란 시대를 따라 강생하시는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소비네의 길입니다. 아마도 우리 수도회가 걸어온 여정 속에 얼마나 크고 작은 새로운 강생들이 소비네들의 생명을 이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해외로 떠난 강생을, 보다 더 가깝게 지내며 사랑하자고 헤어진 강생 - 관구설립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 그리고 나와 똑같이 너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너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보여주라는 예수님의 원의에 따라 설립자를 통하여 성가소비네 공동체의 강생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심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의 ‘텅 빈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나의 본을 따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당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하느님의 ‘텅 빈 충만’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쉽지 않은 명령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내 일상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강생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이제 강생은 사랑이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발짝을 뚫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랑이 나와 함께, 너와 함께 계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절박한 사람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뚫 때,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신 그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원천인 이 강생의 생명줄은 소비네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룬 강생의 삶이 예수님 강생에 한데 모여 공동체의 생명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성가소비네들의 강생의 삶을 원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예수 강생의 현장은 곧 성가소비

네회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소비네 모두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2017년, 해외선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남미지구 수녀님들과 설문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수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관구를 초월하여 성가소비네회 모든 회원들이 연수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리 기도로, 9일 기도로, 자매들을 초대하는 봉헌금으로,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활용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재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설립자이시며 선교사이신 신부님과 해외선교에 파견된 선교 소비네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미래를 향하는 역사전시실 특별기획전과 신부님의 책 발간, 해외 선교 현장에 있는 수녀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꾸며지는 체험 나눔과 야외 부스, 전례, 양 관구에서 마련한 10주년 전시 등으로 의미 있고 풍요로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비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기억은 하느님 현존을 지금 여기로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희망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13.
총장 이 프리스카 소비네



여기에, 지금 뿌려진 소비녀 씨앗들

총원에서 매일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씨앗 소비녀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소비녀가 되는 길을 걷고자, 먼 길을 떠나온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양성소가 총원으로 합쳐지고, 면학기 지원자, 지원자, 청원자, 수련자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있는 외국에서 온 면학기 지원자매들과
지난 11월에 새로 청원자가 된 80회 청원자들, 79회 착복예정자들,
1년 수련자들이 수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손글씨에는 마음을 담은 인사와 소망, 얼굴에는 미소를 가득 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역사가의 믿음이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 설립자 성재덕 신부, 「현대사회와 수도생활」, 46쪽 -

+ 소비녀들의 이름은 가나다순입니다.

81회 면학기 지원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마닐린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 주고,
화해시키고, 가르치고 하느님의 사랑
용기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닐린_ 필리핀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등나이에서 온
찐 마리아 라고 합니다.
저는 절망할 사람들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수녀님이 되려고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볼 뿐만 아니라
어찌까지 하고 싶으니까 연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찐 마리아_ 베트남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빙중에서 온 화 마리아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도와 주고
평화를 주게 한 수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마리아_ 베트남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반미투에서 온 응 마리아라고
합니다. 나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싶으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싶기 때문에 기쁨과 순수한
수녀가 되고 싶습니다. 착한 수녀가 되기 위해서
수녀님들께서는 저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 마리아_ 베트남

80회 청원자



리엔 테레사_베트남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리엔 테레사입니다.
저는 다른 4명의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눌 수도라가 되고 싶습니다.



미옌 마리아_베트남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미옌 마리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은 수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79회 착복예정자



미 마리아_베트남

안녕하세요!
빈중(베트남)에서 온 미 마리아입니다.
저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고, 가장 작은 성인이 되기 위해 수녀원에 들어왔습니다.



lien 테레사_베트남

안녕하세요!
베트남 빈중에서 온 lien 테레사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려고 수도생활을 선택했습니다.

78회 수련자

마 임마누엘_중국



저는 중국에서 온 1명 수련자 마 임마누엘 소비녀입니다.
저희 교구 낯양에서 성가 소비녀들 "작음"의 매력에 반해 국경을 넘어 성가 소비녀회의 한 소비녀가 되었습니다.
저 소명은 사랑의 빛이신 하느님입니다.



김 피에타_한국

저는 1명수련자 김피에타 소비녀입니다.
소명여중, 소명여고 재학시절, 담장너머 보이는 수녀원을 바라보며 '저게 무얼하는 곳일까...?' 호기심 가득하곤 했는데 이제는 반대쪽 담장너머에서 저와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성도의 내막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비녀입니다.
저 소명은 "생명을 사랑하는 하느님"입니다.

천이 예수님! 안녕하세요 ~
저는 의정부교구 신귀동 성당에서 온 79회 청원자 최선희 루치아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루치아에게 하느님 사랑을 알려주고 함께 행복하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하느님께서 주셔서 수도생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최 루치아_한국

안녕하세요 :D 저는 인천교구 간석4동성당에서 온 홍유리 파라입니다
저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께 저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홍 파라_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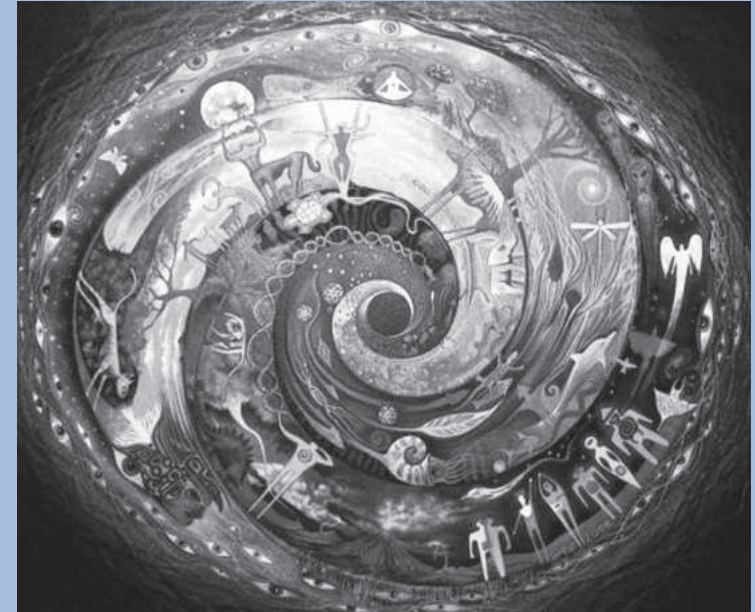
우주, 하느님의 거울



“겸손 역시 하느님을 생각할 때 생겨나는 느낌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마귀가 아니고서야 누가 하느님 면전에서
감히 자기를 평가하며 칭찬을 하겠습니까?
모든 성인들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느꼈습니다.
하느님과 비교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으며
광대한 우주에 뿌려진 한 톨의 모래알에 지나지 않습니다.”
- 설립자 성재덕 신부, 『수도자피정과 영성강의』, 298~299쪽 -

+ 이미지 설명 : 헬릭스 성운(2004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 '신의 눈'이라는 별명으로 불림. +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Helix_Nebula

다양하게 서로 연결된...



+ 설명 : 북미 원주민 수 족의 세계관을 표현한 그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 + 출처 : 이정규, 『우주산책』, 41쪽

토종종자의 중요성과 그 삶_ 백 엠마 소비녀
인터뷰_ 서 마리로사 소비녀 :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인 나에게 돌려라!”_ 이 벤자민 소비녀
내가 만난 우주적 강생_ 첫서약 소비녀들

- ☆ 그 별은 늘 하느님의 자리를 지키네_ 강 한나 소비녀
- ☆ 구원의 여정에서 만난 우주적 강생_ 계 베드로 소비녀
- ☆ 나를 키워 준 어머니의 땅 배론_ 김 시우알렉시오 소비녀
- ☆ 일상에서 만난 강생의 기쁨_ 박 막달레나 소비녀
- ☆ '사랑'이라는 새로운 기억_ 장 예수의 아나뵘 소비녀
- ☆ 빛으로 이어지는 긴 터널_ 전 미리암 소비녀
- ☆ 하느님 창조물과의 '어울림'_ 홍 파니비노 소비녀

영혼의 쉽표 : 청년 예수와 함께 하는 떼제기도 모임
내 신앙 생활의 나침반 : 꽃숨 청년기도 모임_ 이서연 베로니카



토종종자의 중요성과 그 삶

백 엠마 소비너



서두

자본주의 체제와 환경보호는 양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희생자는 노동계급이고, 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지구 생명체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토착민 내지는 농부와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일 것이다.

예전부터 토착민 공동체와 어머니 지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개 사회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태사회주의'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에 말만으로는, 나뉘므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사회주의 정책은 생태학적으로 작동하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한다. 생태학적 원칙이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그 좋은 예는 농업이다.

생태사회주의 대안은 식량을 지역의 필요에 맞춰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모색한다. 농업이 생태적 접근법에 기초하게 되면 토질 보존, 에너지 절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증대가 가능하다. 이 농업은 유기농이어야 하고, 영속 농업에 기초해야 하며, 작물 다양성 또한 중요하다. 이 작물 다양성을 지킨다는 것은 씨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씨를 받으려면 토종종자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왜 토종이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토종의 중요성 : 흙을 살리고 생태환경을 살리는 길

이 땅에서 수천 수백년을 우리 조상들의 삶과 함께해 온 우리 고유의 토종종자들이 잊혀지

고 사라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농촌도 산업화가 되면서, 더 많은 수확과 수익을 내기 위해 인공교배를 많이 하다 보니 맛은 달라지고 야생성은 사라졌다. 다양한 품종은 단일화 되고, 농약과 화학비료에 길들어가고, 씨앗 또한 계속 받아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 세상에는 콩, 옥수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전자변형(GMO) 작물들, 심지어 벼까지 시험재배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바른 먹거리인 우리 토종종자를 보존하는 것은 아주 시급하다.

토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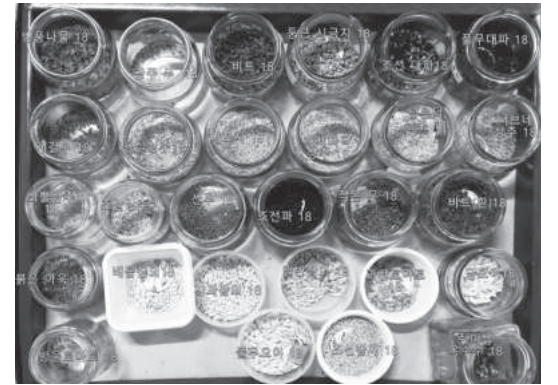
종자는 작은 우주이다. 종자는 씨앗이요, 씨앗은 생명을 담고 있기에 생명 자체이다. 농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밑천이다.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이 자연생태계와 농업생태계를 통해 기후와 풍토에 적응되어 이어져 온 종자를 토종이라 한다.

토종을 지켜야 하는 의미

첫째, 민족의 얼이 배어있는 생명체이다. 수천 년 동안 한 민족의 의·식·주를 제공하여 온 불가분의 생물이다. 곧 조상들의 생명이었다.

둘째, 민족의 가장 큰 유산이다. 생명공학, 품종육종 등 생물학 연구의 기본 자료인 유전자원이다.

셋째, 유전자원 확립화에 대비할 수 있다. 1992년 이전의 유전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유지·보존 되어 왔으나, 92년 이후부터는 생물유전자원은 더 이상 공동유산이 아닌 사적 재산으로, 국가적 권리로 인정하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무상접근, 무상이용이 불가능해졌으며, 유전자원의 국수주의화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한 예로 전 세계 음식의 60%가 밀, 쌀,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종자 생산량의 90%가 소수 품종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토종은 세계에 유일무이하다. 즉, 한 지역에 토종이 사라지면 지구상에서 소멸됨을 뜻한다.

넷째, 지구환경 보존의 근본이다. 토종을 보존하는 것이 땅을 살리는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 매년 남한면적의 1.2배의 지구사막화가 진행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의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을 통해서만이 지구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친환경 유기농업에는 토종이 적합하다. 토종은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친환경 유기 - 무비료, 무농약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종은 특정한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만 있는 종자가 아닌 자연적 병충해에 고르게 저항할 수 있는 수평 저항성을 가지

고 있다.

여섯째, 토종은 종자주권, 식량주권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종자주권이란 농민이 종자를 재종분양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식량주권이란 안전한 먹거리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농부에게는 종자주권이 없는 셈이다. 정책적으로 그 권리를 빼앗아 갔다.

현재 농민은 매년 종자를 종자회사에서 사서 심어야 하며, 한국 식량 자급률은 선진국의 최하위수준인 25%라는 현실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매년 조정되는 종자의 종류와 가격들로 우리들의 식량주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왜 종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1940년대 세계전쟁 종식 후 전쟁 중에 개발된 화학약품을 농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화학산업 - 농약회사, 제약회사의 붐으로 환경오염(토양, 대기)이 수반 되었고, 그 예로 1950년 영국의 스모그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때에 1960년 미국 과학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발표로 서방국가에서 농약에 대한 경종이 울리게 되었다. 레이첼 카슨은 그의 저서를 통해 2차 세계 대전 후에 미국 도시 한가운데 대량으로 살포된 화학 살충제(DDT)의 유해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미국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함을 폭로함과 동시에 관련 규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카슨은 생태계를 보호하지 않으면 앞으로 새도 지저귀지 않고, 야생 동물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 환경 운동가로 활동하였고, 자연의 경이로

움과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과학자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이 유기농(organic)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기농 운동이 시작되었다. 선진국의 유기농 운동으로 인해 농약회사들의 위기가 찾아왔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지향과 대량생산이라는 농업방식의 전환으로 농약 회사들이 위기를 극복하였다. 농업방식의 전환은 도시이주로 인한 가족농의 파괴와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업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다 식물품종 보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소농이나 가족농은 힘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도 농약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유기농 운동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농약회사들은 위기를 느끼고 종자 회사를 사들였고, 제약회사를 벤치마킹해 종자를 조작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식물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식물특허권은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 모두가 알고 있는 모든 생물(종자 포함)을 상품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인류공동의 자산이며 자원인 종자의 독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예가 미국의 몬산토보호법이다. 몬산토는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회사로 이윤을 위해 유전자 조작 식품 개발, 생산 등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농가의 존폐까지 이르게 하였다.

유전자 조작의 핵심은 특허를 내서 독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들어 기업의 종자독

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GMO 승인 국가는 28개국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식용 GMO 수입국(2014년 기준 210만톤)이며, GMO 완제품 식품 역시 최대 수입국으로 사료곡물까지 합하면 일본에 이어 2위이다. 이 현실이 종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 주고 있다.

60년대 말까지 자가 채종으로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의 농법이 경제성장과 대량생산, 도시이주로 인해 관행농법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식량주권, 환경오염, 삶의 방식 변화를 가져올 전통농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의 역사가 이제야 10년이 되어간다. 오직 이윤을 위한 초국적 기업들로 인해 우리의 의·식·주 모든 것이 서서히 위협받고 있는 현상들이 두렵다.

국가마저 돈놀이꾼들에 의해 놀아나는 현실에서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자가채종, 토종종자 보존만이 GMO



를 피할 수 있는 시작이다. 소작농, 도시농부들이 토종종자를 유지, 보급시켜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정리 : 토종씨앗은...

- 우리나라 토양과 환경에 적응한 선조의 열이 배어있는 종자이다.
- 우리의 몸과 입맛에 가장 자연스럽게 정착된 종자이다.
-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지구상에서 유일하고 유용한 유전자원이다.
-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줄 친환경 농업과 텃밭농사에 적합한 종자이다.
- 우리의 종자권리와 식량주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편이다.
 - 수집한 현지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 지구 환경은 해마다 보이지 않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 토종은 한 지역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 진화되어 가야 하는 종자이다.
 - 수집한 토종을 종자은행에만 보존하는 것은 종자를 잠재우는 것이다.
 - 토종은 농민들의 손에 의하여 그 지역 환경에 적응시켜야 한다.
 - 토종은 노지 재배되어야 한다.

생태사도직인 우리 공동체는

자립생활을 한다. 자립이란 다른 편리함에 의존하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 자연에서 나오는 생명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간다.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토종종자로 자연 순환농

을 하며 매년 씨를 채종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또한 이 씨앗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다. 우리의 밥상은 거의 토종종자로 농사지은 작물로 이루어져 건전한 먹거리를 풍성히 먹는다.

농부들은 씨앗주권이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매년 씨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기에 그 주권을 찾아오는 행위로 우리가 먼저 씨앗을 받아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 사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씨앗수집에도 참여한다.

씨앗수집을 다녀보면 시골마을 할머니들은 왜 씨앗을 사서 농사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꾸미꾸미 모아놓은 씨앗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누어준다. 할머니들의 그 나눔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 또한 그렇게 나눈다.

씨앗을 받을 때마다 한 알의 씨앗이 백배 이상의 열매를 내는 생명체라는 사실이 내 손안에서 느껴져 올 때는 경이감마저 드는 설렘이 가슴으로 메아리친다. 씨앗 한 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의 인자한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리 또한 작물에 게도 그리스도의 인자한 얼굴을 보여주는 작은 몸짓을 한다는 것이 씨앗을 받을 때 느껴오는 즐거움이다. 이 즐거움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 좋겠다. 단 한 작물이라도 내 손으로 씨앗을 받아 본다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부들이 씨앗주권을 되찾아오는 연대에 손을 잡는 것이다.

씨앗을 받는 행위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제 종류대로 번성하게 하시며 축복을 주신 그 창조사업에도 동참하는 것이다. 토종씨앗을 받는 것이야말로 종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씨앗을 받을 때의 경이로움!

씨앗의 나눔! 이 모든 것을 통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적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준다. 생태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를 간절히 청해 본다.

마지막으로 GMO의 폐해를 알리며 마치고자 한다.

GMO 작물과 일반 작물을 10년간 재배하며 실험한 결과 일반작물의 생산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MO 작물은 일시적으로 2~3년 동안은 증산효과가 있지만, 이후 내성을 가진 잡초나 슈퍼바이러스가 생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제초제나 살충제를 뿌리게 된다. 농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만 해치며, 토질을 비롯한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각종



연구와 실험에서 GMO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며, 우울증·치매 등 34가지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GMO 종자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 농민들이 스스로 씨앗을 받아 농사지을 권리까지 빼앗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편의대로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생명윤리에도 어긋난다.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안에서 구원되어야 할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살려야 하는 이 사명은 땅과 사람 나아가 자연, 거시적으로 지구, 곧 온 우주를 살리는 것으로서 이 땅에 적응한 토종 종자로 농사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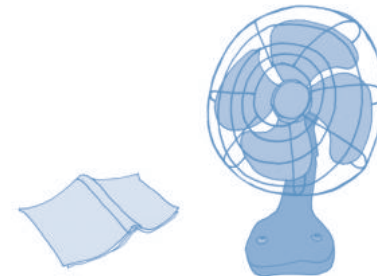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인터뷰_ 서 마리로사 소비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81살 이예요~♪♪”

박 루디빈 소비녀 엮음



수녀님을 만나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소비녀지 편집 담당 소비녀들은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삼랑진을 향해 새벽길에 올랐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였지만 화창한 마음으로 편집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서 마리로사 수녀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 마리로사 수녀님은 현재 안식년 중이십니다. 수녀님은 안식년을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삼랑진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시간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계신 마리로사 수녀님의 안식년 풍경이 궁금하여 자동차로 5시간을 달려 수녀님께로 향했습니다.

수녀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는 삼랑진에 있는 김범우 순교자 성지였습니다. 현재 수녀님이 거주하고 계신 집에서 걸어서(할머니 수녀님 걸음으로) 1시간 반 이상 걸린다는 성지는 매주 미사를 봉헌하는 수녀님의 성당이었습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숙소 근처에 삼랑진 성당이 있기는 하지만 수녀님이 성지 미사를 하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먼 거리를 걸으며 성지 미사를 봉헌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수도회와 회원들, 은인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지 성당에서 수녀님은 비가 오는 날 자신을 만나러 먼 길을 와준 후배 수녀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수녀님과 함께 성지 미사를 봉헌 한 후 밖으로 나와 성지를 함께 둘러보고 점심을 하기 위해 수녀님이 현재 머물고 계신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수녀님이 머물고 계신 숙소는 아주 조그만 주방시설과 화장실이 딸린 방 하나였습니다. 천장이 너무 낮아 저의 큰 키가 천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수녀님은 후배수녀들이 온다고 점심 접대를 하고 싶었지만 변변찮게 내놓을 것이 없어 걱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오는 시기에 맞추어 이웃들이 십시일반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며, 하느님께 의지하고 믿고 맡긴다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수녀님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차려 먹으며, 궁금했던 수녀님의 안식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안식년이었어요.”

수녀님에게는 안식년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원래 안식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안식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지요. 수도자로 살면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이 안식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년이라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 채 지내왔지요. 수도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만 생각했고,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이 일은 저에게도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건이었어요. 당시 저는 서동에서 재가복지 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임을 받고 처음 서동분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다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잘 몰라 당황했지만, 열성으로 도시락 반찬 배달을 하며 여기저기 다닌 결과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계신 이웃들을 많이 알게 되었지요. 점차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 매일 즐겁게 가난한 이웃들을 방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도 나이가 많아 이번 사도직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갔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올 초에 소임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아졌지요. 아직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방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연락 이후부터 오랜 시간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느님만이 저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주시고, 제 일을 지속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타게 하느님께 애원하던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하며 원하는 일을 하라.”였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안식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스스로 안식년을 하겠다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한참을 기도한 끝에 ‘안식년은 자신을 위한 개인의 시간이 아닌, 이 시간을 통하여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와 고민 끝에 안식년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했던 시기와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저의 안식년은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시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삼랑진이라는 지역을 원래 알고 계신 곳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처음에는 계속 부산에서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를 찾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주민센터도 찾아다니고 했어요. 하지만 부산은 이제 개발이 많이 되어 제가 생각한 만큼 가난한 동네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함께 봉사하던 다른 수도회 수녀님의 어머니가 삼랑진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는 아직도 가난하고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무작정 한번 와봤어요. 와서 보니 부산이라는 큰 도시에 비해 이곳이면 할 일이 많이 있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삼랑진에서의 시작은 어떠셨어요?

방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연고도 없고 사실 돈도 없었습니다. 안식년에 수도회에서 나오는 생활비가 저의 전 재산이었지요. 하지만 방을 구할 당시에는 그 돈조차도 없는 상태였어요. 무작정 전봇대만 보고 다녔습니다. 전봇대에는 쌀 월세방을 구하는 전단지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소임을 이동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방을 구할 수가 없어 전전공공하고만 있었어요. 살 집이 있어야 안식년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슈퍼마켓 주인에게 그냥 흘리는 말로 방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부탁 했었는데, 어떤 손님이 커피





를 사러 와서는, 월세가 싼 방이 하나 나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슈퍼마켓 주인이 알려 주어서 지금 살고 있는 방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도 하느님께서 마련 해주신 방이라고 믿고 있어요.

또 삼랑진 성당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방문하며 생활하는 수녀가 왔다는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여기 저기 한 집씩, 방문하면 좋을 것 같은 집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집, 한 집 방문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당연히 낯선 사람인 저를 경계하였지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라는 것이 저에 대한 경계심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외롭게 혼자 살아가시는 할머니들에게 저도 같은 할머니로서 다가가기까요.

시작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움직이겠다고 결정하니,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지요.

“실제적 가난을 살 수 밖에 없어요.”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삶은 어떠세요?

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방문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기회가 되면 가난한 집 방문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삶이 낯설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그들을 만날 때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미역국을 끓여 들고 가거나 저도 나누어 받은 과일 등을 조금씩 더 나누는 것이지요. 가서 사는 이야기도 듣고 제가 사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웃다가 울다가 집으로 돌아오

는 것이 전부예요.

모두 가난하니 소박한 것을 더 소박하게 나눌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풍요로워요. 제가 늘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웃들도 저에게 작은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작은 것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랑을 주고받게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존재의 사도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일이 있으세요?

저는 56년을 수도자로 수도회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수도자로 살아가는 삶은 물론 가난을 살지만 보장되어 있는 가난이에요. 저는 가난하게 사는 수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혼자 수도회 밖을 나와 생활해 보니, 수도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한정된 돈으로 수도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저는 수도회 안에서 가난한 집을 방문할 때, 그들이 반지하 방에 살면서도 불을 켜지 않는 것을 보고 “우울증 걸리지 않게 불 좀 켜고 환하게 지내세요.”라며 방의 불을 켜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그것이 다 돈이더라구요. 잠깐 형광등을 켜도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겨울에 방문을 하면 보일러를 때지 않고 춥게 지내는 이웃들에게 “기름도 나라에서 넣어주는데, 왜 보일러를 끄고 지내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보일러를 켜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돈이 부족하게 살아보니,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제가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쉽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저의 무식함으로 인해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실제적 가난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참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또 스스로가 선택한 가난은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올 여름 너무 더운데 저희 집에는 선풍기가 없어요. 수녀원에서는 더우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불평을 하기도 했구요. 지금은 사실 선풍기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선풍기를 살 수도 있겠지만, 여름은 세 달만 견디면 지나갈 텐데 선풍기를 꼭 사야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참아보기로 했어요. 더울 때는 찬물로 씻고, 부채를 구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면 가난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도 배웠지요. 안식년을 통해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스스로의 성숙과 성장이 더 크게 이루

어지는 것 같아요.

안식년을 지내고 계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공간,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수도공동체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년을 지내면서 '나이가 많아서 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찾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움직인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고 기회도 주어집니다. 저는 81살입니다. 많은 나이지요. 할머니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 이 나이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설레며 눈을 뜹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아하는 일을 충만히 할 수 있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수녀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글에 적혀있는 내용보다 긴 당신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어린 시간을 다 담아내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안식년을 살아가고 계신 수녀님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힘차며, 신이 나 보였습니다.

수녀님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역시나 하나님과의 일치였습니다. 생활 안에서 살아계신 실존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수녀님의 묵상 노트는 하루도 빠짐없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안식년이지만 수녀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개척하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내로라 하는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녀님의 안식년을 통해 저희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생활하고 계신 수녀님의 모습은 자신감에 넘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녀님의 남은 안식년도 박수로 응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인 나에게 돌려라!”

이 번자민 소년녀

차(茶)는 예로부터 가난한 수행자들이 깨어 있기 위해 마시던 소박하고 맑은 수행 음료였습니다. 차는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 존재하는 맑고 고요한 영의 샘을 만나게 합니다.

제가 차를 만나, 차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 길은 늘 아래로 가는 길이었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외롭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이들이 허리를 곧게 펴고 따뜻하게 우려낸 차를 마시면서 명상에 들면, 더는 외롭지 않고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소중하고 품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삶에 찌들고 한없이 짜부라든 자존감으로 움츠려 살아가던 사람들이, 맑은 차 한 잔을 마시고 하느님을 향해 넉넉하고 시원하게 고개를 드는 체험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자극적이고 자신을 파괴하는 것들에 중독되어 망가져 가던 사람들이 차를 만나 조금씩 치유되고 건강한 존재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차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어느 날, 제 마음에 크게 울린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인 나에게로 돌려라” 아, 이것이 소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소명,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리기 위해 봉헌했던 시간들을 여기에 나누고 싶습니다.

봉천동의 아이들

2001년도에 요셉공동체의 프로그램으로 공장 체험이 끝나고 봉천동으로 소임을 갔을 때

니다. 봉천동에 있는 서울가정간호에서 재가 복지 사도직을 했습니다. 봉천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입니다. 저소득층의 작고 가난한 이웃들이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참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는데,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면서 어르신들이 작은 골방에 홀로 살아가고 계시는 외로운 모습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느라 날마다 셋방에서 나와 피약별 아래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얼굴이 장아찌처럼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낮 동안 모시는 주간보호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한글을 배우고, 팔힘을 키우기 위해 우리나라 전통 장구도 치시고, 다도도 하시고, 한국무용도 가르쳐드렸습니다.

제가 복지를 하며 동네를 돌아다닐 때가 많았던 제게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너댓 명의 아이들이 골목길에 쭈그리고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며, 본드도 흡입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코 뚫고 배꼽 뚫고 튀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못 먹고 담배와 본드를 흡입하니 얼굴은 파리하고 발달이 털 된 듯 왜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지나가다가도 그 아이들을 보면 못마땅해 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후미진 골목길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부모가 새벽에 일 나가면 매일 잔

업에 시달리다 밤 10시에나 돌아오니,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늘 방치된 상태로 성장해 왔으니까요. 아직 꽃다운 10대의 나이에 본드를 흡입하고 담배를 피우니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앞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도망을 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5~6명의 아이들이 또 골목길에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텃석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나도 담배 한 대 줄래?”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이 담배 피는 수녀도 있나 하는 의심으로 가득한데 “왜? 니네 그렇게 좋은 거라면 수녀라고 못할 것 있냐? 잘 됐다. 같이 피우자.” 하면서 담배 한 개피를 받아 잘 피우는 사람처럼 그럴 듯하게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과 동질감을 느꼈는지 나중에는 힘이 부칠 정도로 틈만 나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간보호소로 놀러오면 밥도 먹이고 놀다 가게 했는데 문득 ‘아, 차를 먹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차를 마시면 머리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솔깃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차를 내려 주었습니다. 처음엔 한 모금 마시고는 맛이 이상하다고 뱉어내기도 하고, 차를 먹다가 별령 늑기도 하고, 잔을 입에 물고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차가 아이들에게는

아주 낯선 음식일 터이고,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담배와 본드 흡입으로 절어있는 아이들 입에 담담하고 맑은 차물이 처음부터 맛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다 먹었니? 또 먹어라. 이것은 지리산에서 자란 차다. 이것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며 차잔을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차를 마시니까 점점 들떠있는 모든 것이 고요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늙는 아이들도 없어지고 반듯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서 옛날에 선조들이 차를 마실 때 이렇게 했다며 아이들에게 차잔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잔 드는 것, 받는 것, 공수하는 것을 가

르쳐보았습니다. 절하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은 절을 이렇게 했다.
너희는 양반이다. 하느님 집안의 아들 딸이니가
너희는 양반 중의 양반이고, 선비 중에 선비다.”

아이들의 자리가 잡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여자 아이들에게는 생활 다법을, 남자 아이들에게는 선비 다법을 가르쳤습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차를 주면서 예절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소년 전국 차문화 경연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3명(여자 2명, 남자 1명)을 뽑아 경연대회에 내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대상과 장려상을 휩쓸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 놀랐습니다. 자기들도 놀랐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도 풀썩이고 거의 존재감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받은 상을 학교에 내라고 했더니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입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5~60명이 모여왔습니다. 당시 빈민사목 담당 이계호 신부님이 신나서 적극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전라도의 정약용 유배지 다산 초당, 초의선사 생가 등 차 문화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 아이들은 저를 어찌면 ‘담배 피는 수녀’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이들 눈높이로 다가가 소통을 하고, 담배와 본드를 물던 그 입에 차잔을 물리고, 차츰 하느님이 창조해주신 자기 존재의 품위에 맞는 모습으로 차를 마시게 하는 그

과정 동안 서서히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맑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변해갔던 그들의 모습이 제가 살아가는데 참 힘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치료를 위한 다도 프로그램

부천성모병원 사회사업과로 소임이 이동되어 왔습니다. 그곳에서 알코올 의존치료센터에 정서적 지원을 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다도니까, 그분들께 명상 차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명상음악을 준비하고 묵상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차상을 차리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들꽃을 꺾어 각자의 차상에 하나씩 꽂아드렸습니다. 술에서 헤어날지 못한 삶을 사는 동안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 차도 좋은 차를 썼습니다. 술을 끊었을 때 아주 좋은 것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술을 끊었을 때 힘들어지면 다시 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알코올과 차는 상극입니다. 차는 알코올에 절여진 간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알코올에 인이 박힌 분들이라 차 마시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차의 해독작용으로 차츰 좋아지십니다.

명상 차 프로그램을 마치고 서로 나눔을 하는 시간에는 참 많이들 우십니다. 어떤 분은 차상에 꽂힌 작은 꽃 하나가 그렇게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받아보는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시간 내내 우십니다. 차상을 차려드리고 작디 작은 꽃 한 송이 꽂아 드리고, 좋

은 차 한 잔 정성껏 내려드리고 명상음악, 묵상 거리를 드리고, “선생님은 양반이십니다. 본래부터 양반이었습니다. 하느님 가문에 속한 양반이십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안과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양반이었구나, 그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구나, 나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구나...!’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며 우시는 분들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치유적이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가난한 이웃을 알게 하는 차의 길

김해 삼방 분원이 처음 생기고 사도직을 개척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삼방에서 소임하는 동안 인제대의 초대를 받아 한국 전통차 문화학 강사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차문화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제게 의미 있었던 것은 대학생들이 차를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성당에 다니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장애아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작업치료로 다도를 활용하는 것도 보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차 문화학 강의의 문을 열면서 대상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난 분들 중에서 예수마리아요셉회 입회자가 10명이 나왔고 현재 서원자가 6명입니다. 무엇보다 중증지적장애인 부모님들의 차 모임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평생의 십자가를 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도를 하기 위해 모이는 날은 아이로부터 잠시 벗어나 쉬는 시간입니다. 유일하게 자신들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은 많이 울고 위안을 받고 힘을 얻어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공무원들과 경찰들의 요청으로 경찰청에 가서 다도를 하다가, 지금은 나눔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도 입문식 입회 원서에는 반드시 차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차를 배우는 이유는 교도소나 소년원으로 가서 재소자들에게 다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들도 자신들의 삶이 없

는 절박한 분들입니다. 험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져서 마치 쇠꼬챙이 같습니다.

6개월 공부 후 입문식을 할 때는 각자의 배우자를 다도에 초대를 합니다. 자기 배우자 앞에 앉아 절을 하고 차를 우려서 주고 편지를 읽어주게 하는데, 편지를 읽다가 그 거칠고 건장한 남자인 경찰들이 그렇게 읊니다. 그들이 우는 것을 보면 ‘아,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다 불쌍하다, 다 불쌍하다...!’ 세상 모든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차오릅니다. 이럴 때 다도는 하느님께 올리는 깊고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치유 명상 다법

“주 하느님께서서는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창세기 2, 9)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 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에제키엘 47, 12)
“생명수의 강이쪽저쪽에는 열두 번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요한 묵시록 22, 2)





성경의 나오는 차를 의미하는 것 같은 말씀들입니다. 수도자로서 다도를 하기에, 차가 기도가 되고 목상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접목하여 말씀과 함께 하는 명상 다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법은 남도의 선비들이 차를 마시던 다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선비들은 홀로 앉아 차를 마시며 자신을 성찰하고, 흰 구름을 초대하여 “백운, 차 한 잔 드시게.”하며 자연과 벗하였습니다. 이를 백운잔(白雲盞)이라 하는데 옛 선조들의 고시례 잔입니다. 저는 이를 하느님의 잔으로 바꾸고 감히 하느님을 저의 차 자리에 초대하여 “하느님, 차 드십시오.”라고 하며 첫 잔을 올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명상하니 하느님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은 보잘 것 없는 저의 차 자리에 오셨고 저와 함께 차를 드셨고, 저와 함께 앉아서 저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강생입니다.

강생은 저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흐릅니다. 다문화센터가 있는 삼방의 성가 공부방 아이들과도 다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공부

방 아이들보다 더 안정되고 예의 바르다고들 합니다. 물론 공부방 소임을 하고 있는 수녀님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서 그렇겠지만 다도의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해 지역의 다른 지역아동 센터에서도 다도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는 어린이들의 인성과 정서를 안정시키고, 예의 바르면서도 건강한 자존감을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차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부부들과 만날 때입니다. 부부가 하는 다도는 원앙다법입니다. 이를 배운 부부가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과 차를 나누고 하루의 생활을 나누는 명상다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저는 이를 ‘성가정 다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말씀을 함께 듣고, 몸과 마음에 좋은 차를 마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되돌려 성가정으로 변화되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설립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께로부터 가난한 나에게로, 나에게서 가난한 이웃에게로 흐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강’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소명을 새롭게 다지며 오늘도 차를 통한 강생의 길을 나섭니다.

내가 만난 우주적 강생 : 첫서약 소비녀들

2018년 12월 8일에 첫서약을 한 일곱 명의 소비녀들이 2년 수련자로서 실습 기간동안 실습지에서 체험한 우주적 강생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소비녀 공동체는 ‘수도생활’이라는 삶의 양식을 통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각자의 소명을 알아 듣는 작은 발걸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소비녀들이 강생의 터전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더 깊고 더 넓은 우주적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 소비녀들의 이름은 가나다순입니다.

그 별은 늘 하느님의 자리를 지키네

강 한나 소비녀(의정부관구 첫서약자)



저는 여성들, 특별히 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어머니들의 삶에 늘 유난히 마음이 울컥하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리 슬펐던 일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무덤덤하게 때로는 웃으면서 하곤 하는데, 이상하게도 고통받는 여성들이나 한 집안의 맏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이나,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초창기 수녀님들의 회고록에서 우리 수도회 초대 맏언니였던 김 엠마누엘 수녀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도 울지 않는 대목에서 저 혼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 수도회의 초창기, 불안정하고 빈곤한 살림을 책임져야 했던 수녀님의 마음과 그 어깨에 지워진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분명 여성들, 어머니들과 공감되는 슬픔과 연민의 깊은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차츰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처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수행을 통해, 언제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자이며 해방자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설립영성을 배우고 내면화하면서 내가 강생해야 할 낮은 곳은 어디인가?

하느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계속 마음이 움직이는 곳은 언제나 여성, 그것도 특별히 더 책임을 져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년 수련기 실습지로 미리암 이주여성센터를 두드린 것은 그런 제 마음의 향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국의 여성들이 왜 이 낮은 한국에까지 왔을까? 왜 이 낮은 나라 사람과의 결혼을 택했을까? 그들의 내면에 어떤 사연과 어떤 슬픔이 있을까? 그들이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제 안의 많은 질문과 끝없이 끌리는 연민의 마음을 안고 미리암 이주여성센터에서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이주여성만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한국어학교 첫 수업 날부터 저의 고정관념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교에 참석한 남학생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일 오후, 혜화동 성당에서 필리핀 미사, 이주민들의 장터가 열리는 대학로의 '유일한 한국어 학교'인 이곳은 또 하나의 소통의 장이기에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떨어진 안산, 강화 심지어 충청도에서 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엄마가 공부하는 동안 사무실 한쪽에서 공부와 놀이도 하고, 수건 하나 덮고 썩썩 단잠을 자기도 하고, 크레용을 먹기도 하지만 울지 않고 잘 참고 기다려주는 대견하고, 반짝 거리는 눈의 아이들도 함께했습니다.

미리암 이주여성센터의 우정원 소장님은 성가소비녀회를 무척 좋아합니다. 처음 센터가 어려울 때 여러 수도회에 도움을 청했는데 바로 응답을 주었던 수도회, 지금도 여전히 도움을 주고 있는 수도회가 성가소비녀회라고 하시면서요. 세상 낮은 곳에서의 요청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훌륭한 선배 수녀님들이 계셔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니 수녀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비녀가 되려고 열심히 실습에 임했습니다.

미리암 이주여성센터에서 7개월 가까이 실습을 하면서 이주여성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주여성과 동행해서 방을 구하러 다니고, 이사를 도와주고, 관공서도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인에게는 별 것이 아니었던 일들이 이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큰 힘이 됨을 느꼈습니다. 집주인이 함부로 방에 들어오기도 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각종 범죄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예 방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사기도 당하고 바가지도 씹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이주여성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때마다 내 일처럼 분개하면서 그분들의 마음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작은 제 힘에 비해 너무 큰 세상의 불의 앞에서 그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슬퍼질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이주 여성들이 자녀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였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 중인 이주여성 벨라는 아이가 고등학생이라고 하며 아기 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사진은 없냐고 물으니 고등학생이 된 딸이 이제는 사진을 주지도 않고, 엄마와 함께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하러 가서 딸과 같이 찍은 사진을 요구하는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사진이 없다는 말을 해야 했던 슬픈 엄마, 한국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열 달의 산고를 겪고 한국인의 엄마가 되었지만 아직도 외국인, 자식에게조차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엄마도 안타깝지만, 아이의 아픈 마음도 알 것 같습니다. 한눈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한국말도 못하고, 친구 엄마와는 달리 일상적인 일에도 서툰 엄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버거운 짐자가입니다. 편견 가득한 사회의 시선과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야 했을, 그리고 속으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친구 엄마들과의 다름을 느끼며 받았을 상처로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적취득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내용에는 한국인도 다 모르는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긴 시간 일을 해야 하는 팍팍한 노동자의 삶 속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충분치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과도 소통이 안 되고 소외되는 생활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됩니다.

아이가 세 살 때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을 둔 이주여성 켈리는 아직 한국 국적취득은 못했지만, 제가 이곳에 온 이후 한국어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인 경상도에 가서 할머니의 사랑을 아이가 듬뿍 받게 해주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저축도 하면서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오랫동안 엄마 따라 이곳에 함께 와서 선생님들과 한국어학교의 다른 학생들과도 친해졌고 모두에게 한껏 사랑받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여성들에게 미리암 이주여성센터는 그래도 의지처가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소연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센터의 활동에서 늘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듯 관심을 가지고, 혼자가 아픔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는 도움만이 아니라,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 한복을 입고 고궁관람을 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 만들기를 하기도 하면서 일상의 힘들에서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센터를 떠나와도 그곳에서 만났던 이국의 여성들, 그들이 이고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늘 가슴에 체기처럼 얹혀있음을 느낍니다.

실습내면화 피정을 하면서 루카복음 1장에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아주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피앗으로 응답하면서 이제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또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어머니로 부르심 받았고 어머니의 길을 시작한다는 것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며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이주여성센터에서 실습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없는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항상 그들 뒤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있으면서 언제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그래 나 여기 있다.”하고 달려가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친정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소명은 폴라리스, 북극성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늘 한자리를 지키는 북극성, 그 별이 지키는 자리는 바로 하느님의 자리입니다. 여기 하느님이 계시다, 너를 지켜주고 중심이 되어 주시는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 하느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고 길을 찾으라고 늘 그 한 자리를 지키는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소명은 어머니로 진화되어 감을 느낍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의 먼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슬한 여성들 뒤에 어머니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 있는 것, 언제든 그들이 달려와 기댈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늘 출렁거렸던 알 수 없는 슬픔의 이유를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만남 우주적 강생

7계 베드로 소비녀(인천관구 첫서약자)



자기양성계획 실습지로 소록도에 간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소록도에 사시는 어르신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

“수녀님, 봉사라고 해서, 성한 내가 성하지 못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생각,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아주세요. 똑같은 인간으로요.”

이 말씀을 듣고는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다. 실습을 마치면서 ‘함께 산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며 어우러지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며, 이것이 강생의 삶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가 만났던 한 할머니는 말기 암으로 입원을 하셨다. “여기는 안 아프고 죽을 수 있는 곳이나? 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여기서 죽으면 화장터 바로 가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마침 같이 검사 갈 일이 생겨서 휠체어를 미는 순간부터 2시간 동안 할머니는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셨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시간 앞에서 죽음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 더 살고 싶은 마음, 사위에 대한 원망, 그동안 모은 많은 돈을 사위에게 빼앗길까 하는 불안, 재산처리에 대한



고민들을 들으며, 나는 할머니께서 생의 마지막까지 원망과 분노와 돈에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루 빨리 할머니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느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와 위로가 할머니 마음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머니 마음이 빨리 정리되고 좀 편안해지시길 기도할게요.”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다음날, 할머니 식사를 도와드리는 중에 할머니는 식사를 하시다 말고 문득 온갖 서류뭉치와 신용카드, 수많은 통장들을 꺼내어 이로 막 찢고 물어뜯으시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다. 젊을 땀 돈 독이 올라서 살았는데 삶이 허무하다며 막 울려고 하시더니, 젊을 때 당신이 봉사활동 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사위에게는 ‘너 때문에 죽는다.’는 욕 한 사발 문자를 보내기도 하셨다. 며칠 동안 할머니의 불안과 분노, 원망, 삶에 대한 미련으로 출렁이는 감정들을 함께하면서 할머니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하느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길 기도했다. “주일은 저 안와요.” 했더니 “그럼 기도 많이 해주세요.”하시는 말씀에, ‘이분이 기도에 위로를 받으실 수 있구나.’ 싶어 그 말씀에도 감사했고, 할머니를 돕고 싶었다. 그렇게 실습이 끝나는 날까지 할머니와의 만남은 계속됐다. 소록도를 떠나기 하루 전, 할머니께서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다행히 돌아가시던 날이 병원 봉사체하는 날이었던지라, 신부님께서 임종기도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할머니와의 첫 만남부터 임종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할머니를 구원으로 이끄셨던 하느님과 우리의 여정 중에 시작부터 함께 계셨던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본 할머니의 구원 여정이 내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 역시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으며 할머니의 임종 전 하루와 나의 오늘 하루는 똑같이 하느님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하루라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같은 곳을 향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시간,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느님의 품을 느낀다. 마치 이 우주 안에 수많은 삶이 강생하고 역사를 이루듯이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만나고 있는 것 같다.



나를 키워준 어머니의 땅 배론

김 시우알렉시오 소비너(의정부관구 첫서약자)



어머니의 땅 배론에서

배론의 땅은 엄마의 태 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서 영양분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꼬물꼬물 몸을 움직이는 온갖 씨앗들, 어머니인 대지의 몸을 뚫고 세상에 빼꼼 얼굴을 내민 새싹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밤의 침묵을 깨고 그 작은 생명의 탄생에 환호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씨앗과 새싹, 겨울에 실습을 나간 제가 배론에서 만난 첫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겨울부터 봄까지 배론 생태공동체의 가족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처음 우리를 찾아온 가족은 강아지와 닭 식구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토끼 가족과 염소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물들과의 동거가 시작되면서 정말 신비롭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

다. 암탉들은 이상하게도 수녀님들이 마련해준 자기 집을 두고 토끼집이 있는 향아리 속이 더 안전해 보였는지 모두 그곳에 가서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흥계 한 마리가 그 향아리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닭들이 알을 낳으려고 비좁은 향아리에 들어가 푸덕거리기도, 자기 머리와 몸을 밟고 놀러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었던 것 입니다. 자기가 낳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낸 것이었습니다. 병아리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닭은 그 병아리들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가 부화할 때까지 온

몸으로 품고 곳곳이 지키는 엄마 닭의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토끼네 집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토끼집에 짓눌린 풀들과 토끼똥과 닭똥들이 뒤섞여 지저분해진 것을 보고 수녀님과 함께 깨끗이 청소를 해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이 며칠 전부터 토순이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지 모를 조심스러움으로 토끼집 바닥에 지저분하게 엮인 토끼털과 풀을 긁어내는데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갓 태어난 토끼 새끼들이 파인 땅 속에서 서로 엉켜 꼬물대고 있는 것입니다. 수녀님은 토끼는 자기 새끼를 사람들이 보거나 건드리면 새끼를 죽이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토끼집과 풀들을 원위치 시켜 놓았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 토끼 토

순이가 얼마나 애를 썼을지 떠올라 마음이 잔해졌습니다. 암탉들이 자기 집을 두고 토순이네 집이 있는 향아리 속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알을 낳고 병아리까지 품었으니, 새끼를 낳은 토순이에게는 정말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었겠지요. 그래서 토끼집 입구를 흙과 풀을 가져다가 앞발을 이용하여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털을 뽑아 새끼들 위에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토끼집에 흙과 풀과 털이 엉겨 있었던 것은 지저분해진 것이 아니라 토순이가 새끼토끼를 지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한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닭과 토순이가 보여준 모성애의 대단함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돌봄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돌봄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동물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착한 토순이에게 제가 엄마가 되어서 뛰어다녔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토끼가 어떤 풀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많이 해맸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동안 이제는 토끼들이 민들레, 왕고들빼기, 고들빼기, 썸바귀 같은 쓴 풀들과 토끼풀을 좋아하고, 또 망초대, 아카시아 잎, 벼과류 잡초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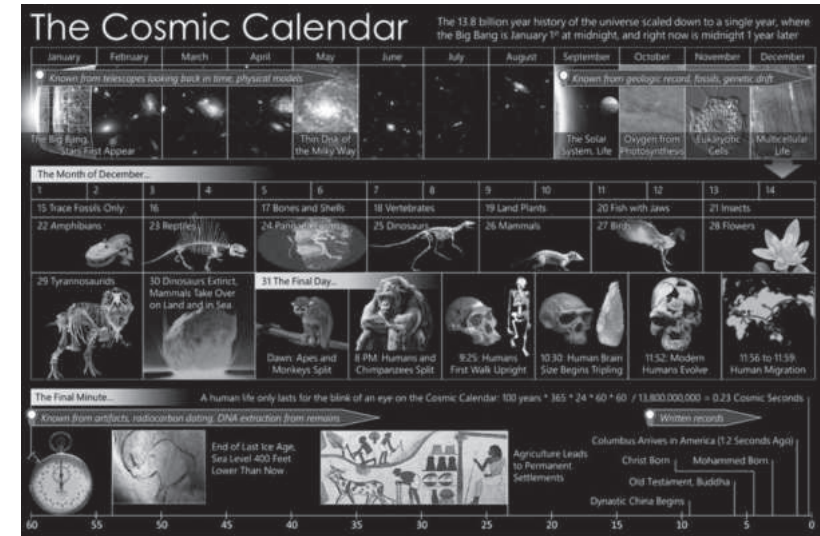
우리 동물 가족의 밥을 준비하기 위해 뛰어다니면 인심 좋은 이웃들이 자기 밭에 있는 풀을 뜯어 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풀과 먹을 수 있는 풀들을 낫으로 베어오곤 했습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가는 발걸음은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초보 엄마인 제가 가져온 풀들을 오물오물 맛있게 먹여주는 동물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물들의 엄마 노릇을 했다면 그런 저를 키워준 것은 또한 공동체 수녀님들의 사랑입니다. 수도생활도 초보, 농사일도 초보, 동물 돌보는 것도 초보, 음식 만드는 것도 초보, 공동생활도 초보인 저에게 하나 하나 알려주고 기다려주고, 어디든 무엇이든 늘 느끼고 서툰 저와 함께 해주셨던 수녀님들의 사랑 안에서 저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표현하고 토론하도록 저에게 도전을 주셨던 그 시간이 제가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직면해가도록 성장시켜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하느님의 시간





일상에서 만난 강생의 기쁨

박 막달레나 소비녀(인천관구 첫서약자)



1차 실습지였던 병원 원목실에서 과거의 아픔과 마주했다면, 2차 실습을 통해서는 현재의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처음 2차 실습지로 계획한 장소는 노동사목위원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인 꼴잠이었다. 가난한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생각하며 정한 실습지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연대에 앞서 공동체와의 소통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와 가까운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연대는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래서 변경된 2차 실습지는 공동체 생활에서 매일 실제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인 주방이었다.

주방에서 실습을 하면서 수녀원 영양실에서 근무하시는 마리아 자매님을 통해 하느님은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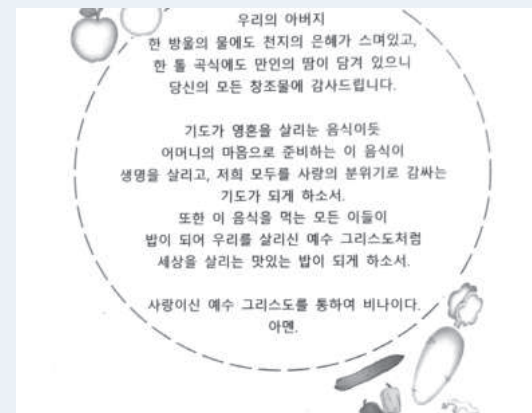
것을 알게 해 주셨다. 나는 항상 나에게 성실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잘 바꾸지 못했다. 그런데 마리아 자매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성실함 하나를 밀친 삼아 살아 오셨다.”는 당신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다. 그 성실함이 아무것도 없던 “가족을 먹여 살렸고, 딸을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하셨다. 계속해서 하느님께 충실함의 은총을 청했던 터라 자매님의 그 성실함이 더욱 빛나 보였다. 수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하고 좌절하던 나에게 단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 하느님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 하나면 나를 살아가게 하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내 안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주방실습은 놀랍게도 숨겨졌던 나의 보물을 찾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나를 허용하자 다른 이의 마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순간순간 걱정이 들 때면 움츠러들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니 한결 편안하고, 다른 이들도 받아들이기가 가능해졌다. 제일 어려워했던 공동체 사랑과 정결에 조금은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어느덧 새벽마다 수녀님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릴 때 더욱 마음을 담게 되었다. ‘물도 좋은 말을 들으면 입자가 예뻐진다는데...’ 국을 끓일 때 불 앞에서 국에게 칭찬도 해주고, 나물에게도 이야기를 건네며, 음식을 드실 분들을 생각했다. 내가 지은 이 밥이 누군가의 에너지가 되어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뿌듯했다.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묵상하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요한 21, 12)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남다르게 다가왔다. 제자들이 길을 떠나기 전 당신의 사랑과 에너지를 주시는 예수님을 돌아보니, 주방에서 아침을 차리는 나와



제자들의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이 하나였다. 일상에서 아침을 차리며 수녀님들에게 품었던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이것을 깨닫자 일상의 소소한 일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 많아 기뻐졌다. 고구마 순을 다듬으며, 꼬질꼬질한 물이 든 손톱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기쁨 속에 살아 숨 쉬어라.” 온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신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숨 쉬는 방법을 훈련시켰고, 스스로 기뻐서 숨 쉬며, 살아있음 그 자체가 기쁨이자 당신의 사랑임을 느끼며 그 숨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라셨다. 숨 쉬고 있는 모든 것, 특별히 가까이에서 서로의 숨을 나눠 쉬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공기를 내쉬듯 나를 내어 놓고, 숨을 들이 마시듯 상대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기쁨을 발견해 갔다. 하느님은 2년 수련기 실습을 통해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살려주셨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원의를 품게 해주셨다.



주방 실습기간동안 바쳤던 기도문



‘사랑’이라는 새로운 기억

장 예수의 아내인 소베녀
(의정부관구 첫서약자)



양양 디모테오꿈마을 요양원과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나지막한 산들과 밭, 그리고 시냇물 소리, 산새소리로 가득한 평화롭고 정겨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장 예수의 아내인 수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첫인사를 드렸을 때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직원들은 그 어려운 이름을 금세 외우시고 정답게 불러 주셨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께는 끝내 어려운 이름이었지만요.

그렇게 시작된 요양원에서의 실습, 첫 만남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고 있는 저에게 어르신들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알아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어르신들 말씀 들어드리고 함께 앉아

있고 그분들로부터 농사 정보도 듣고, 요리 정보도 듣고 저는 그저 감탄하고 놀라워하며 장단을 맞춰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가 실습한 곳은 주간보호센터였습니다.

아침에 어르신들의 송영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영주마오로 수녀님과 함께 두 분의 어르신을 모시러 가면서, 잠을 잘 주무셨을까?, 식사는 잘 하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멀리 마을에서 떨어진 산 밑에 살고 계신 어르신 집에 다다릅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집 안에 계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당신 집까지 올라오는 길이 위험하다고 꼭 비탈길을 내려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섯 분의 어르신들께서 모두 오시면 간식을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따라가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살며시 도와 드리면서 그 시간을 함께 합

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과 손발이 척척 맞아 함께 해나가는 즐거움이 생겨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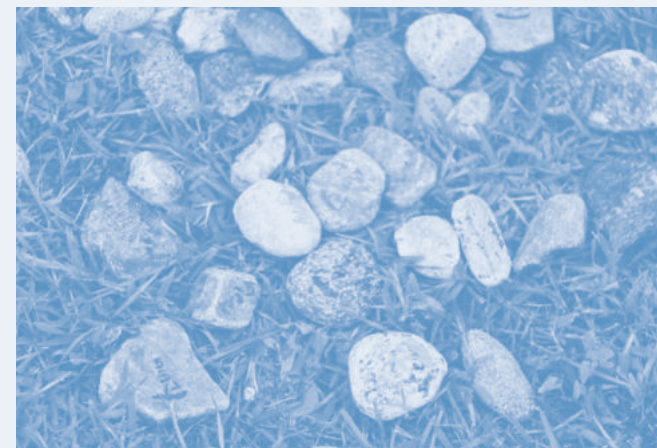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어르신들과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 생활실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 맞는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생활실을 지날 때면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늘 당신 옆자리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와서 곁에 앉으라고 초대하시던 어르신입니다. 옆에 가서 가만히 어르신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있노라면 그 순간이 참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언제나 성모님 앞에서 인사하시고 성호경을 그으면서 기도하시는 신심 깊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하면서 삶과 죽음의 차이가 참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죽음의 빛깔이 정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한생을 살다간 작고 가난한 어르신의 영혼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어르신은 기쁘고 평안한 얼굴빛이었습니다. 하느님 품 안에 계신 어르신의 영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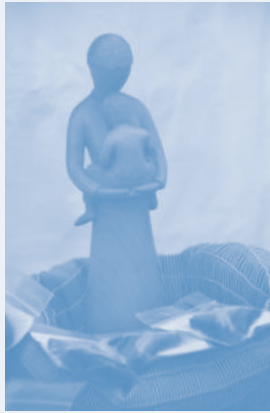
어르신들과 가까워질수록 제 안의 상처들이 나날이 치유되어 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수녀원 입회 전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부모님이 모두 도시로 나가 계실 때 제가 할머니 곁에 남아 섬에서 지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

가 활짝 펴고 싶었던 저의 꿈이 할머니 때문에 좌절되고 날개를 접게 되었다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오빠들만 귀하게 여기고, 저는 늘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조금씩 안으로 서운하고 아프고, 상처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어두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수녀원에 입회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저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유독 그 기억이 저를 가로막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정말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늘 피하고 싶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많이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내적 여정을 조금씩 조금씩 치유와 성장으로 이끌어주시는 가운데 저는 2년 수련기를 맞이했고, 이제는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도전해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르신들을 모시는 디모테오포마을 영양원 실습을 청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는 선택을 통해 저는 제 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위험을 감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어르신들 속에서 너무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과 나 사이에 하느님께서 작업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무작정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의 관심과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제 안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분들을 어떻게든 편하게 모시고 싶어 어르신들이 앓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시간 그 상황을 접해왔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찌할 수 없이 치매라는 병을 앓게 되신 어르신들의 모습 안에서 그분들의 긴 세월 고달팠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저는 어린 시절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할머니도 그때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중에 할머니를 뵈면 꼭 미안하다고, 제가 어려서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

으로 할머니 목욕도 시켜드려야겠다고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간보호 어르신들과 하루를 보내고 남은 시간은 생활실 어르신들과 함께 합니다. 식사시간 전까지 말벗을 해드리면 어르신과 저 사이엔 반복되는 대화입니다.

“어디서 왔수?”

“저어기~ 남도에 있는 섬이요.”

“멀리서 왔네.”

“어딘지 아세요?”

“몰라.”

그리곤 제 손을 만지며 “참 포동포동하네. 나랑 똑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늘 이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지만 그 안에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시고 예뻐해주시는 어르신의 사랑과, 어르신을 친할머니처럼 따르는 저의 사랑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할머니에 대한 어두웠던 기억이 조금씩 물러가고 그 자리에 어르신들의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르신들을 통해 상처 입은 저의 기억을 치유해주시고 사랑이라는 새로운 기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치매로 지워져가는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제가 드리는 사랑이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그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인간’의 모습을 한 우주, 하느님의 강생

여러분의 몸 안에는 약 7,000,000,000,000,000,000,000,000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의 나이는 모두 수십억 살입니다.

아주 깊은 수준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모습을 한 우주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질소,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의 주요 성분인 철, 애플파이에 들어있는 탄소 등의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조리 별의 내부에서 합성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의 자녀들이다.”

- 칼 세이건, 「코스모스」, 458쪽 -

‘별’을 만드신 분의 이름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별이 하느님의 강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그 순간이 하느님께는 찰나요, 인류라는 생명체에게는 138억 년이 걸려야 하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것을 과학의 도움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 창조의 긴 여정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그 강생의 여정을 우주적 시야로 바라보고 싶어집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우주, ‘나무’의 모습을 한 우주, ‘바람’의 모습을 한 우주, 우주 안에 가득한 모든 생명체들이 하느님의 강생임을 더 깊이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이어지는 긴 터널

전 미리아 소비너(의정부관구 첫서약자)



2월의 쌀쌀한 공기를 가르며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실습지로 나설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맞이할 상황들과 그 상황들 안에서 만나게 될 또 다른 나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수련소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처럼 모든 것이 절로 주어지리라는 풋풋한 기대만으로 내디딘 첫발.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저에게 필리핀 분원과 의정부 이주노동자 상담소 엑소터스로 안내하는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필리핀의 첫 기억은 태양의 뜨거운 열기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한겨울의 추위에 굳어 있던 제 몸을 단숨에 녹여주던 공기가 생명의 에너지처럼 느껴지면서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의욕이 충전하여 다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다 잘 되게 해야 한다는 제 중심의 착

각 속에서 첫 번째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유로움과 흥겨움으로 가득 차 있어 때때로 해방감까지도 맛보게 해준 그들의 매력적인 문화,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만큼 생생한 실제 가난의 현장, 그리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 또한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만큼 제 뒤편으로 남겨 주신 일들...

감사로운 상황으로 넘쳐나는 이곳 사도직 현장 안에서 느닷없이 만나게 된 것은 과거에 나에게 찢아 찢아 살아가던 그것, '생존본능'이었습니다. 낯선 생활에 적응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나타난 그것, 너무도 자기중심적이어서 삶의 주도권을 꼭 붙들고서 하느님과 공동체에게 절대로 내어드리지 않으려던 바로 그것. 거기에 더해, 수련기 동안 나름대로 충분히 성찰해서 많

이 벌어지고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저의 그림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모습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고개를 빼꼼히 내밀기 시작하는데, 그 느낌은 신선한 충격이다 못해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의 원인들을 모두 외부로 투사시키고 있는 날것으로의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자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회 전으로 뒷걸음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소중한 일상들과 감사할 상황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알몸처럼 드러난 저의 실체를 두렁이로 감추는 데에만 급급해하던 딱한 저에게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으니, 이곳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여러 질문들과 두 번째 실습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한국, 내가 과연 수도자가 될 수 있을까? 수도자란 누구인가? 수도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부터 던지며 두 번째 실습을 시작한 곳은 의정부 이주노동자 상담소 엑소터스였습니다. 이곳은 2017년 성탄 때 저희 수련자들이 '바로 지금 여기로 예수께서 강생하신다면 찾아오실 것 같은 그 장소를 방문해보기'라는 미션 수행의 대상지로 선택한 강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체험도, 저와는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 있어 필리핀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필리핀에서는 제가 이방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본국인이기에 저의 기준으로 좀 더 익숙한 환경에서 보다 용이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나약한 저이기에 익숙함의 지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삶의 여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미, 수도자의 의미를 찾아볼 힘도 얻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일한 만큼의 월급은 당연한 듯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터에서 다치면 과실을 범한 사람의 사과 대신 꾸지람과도 같은 욕박을 들으며, 의료보험이 없어 사흘 치 감기약을 지으려면 몇 만 원씩 내야하는 현실로 인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그들이 상담소에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당한 상황을 함께 아파하며, 직접 발로 뛰며 문제를 해결하는 선생님들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받는 모습을 볼 때, 민중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교육을 시행하고, 이주민 차별을 만들어내는 부당한 법체계를 변화 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연대에 함께 참여하는 동안 복음을 설파하시며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기득권층을 향해 거침없이 쓴 소리를 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약속도 없이 시시각각 방문하는 노동자들과 기꺼이 한 끼 식사를 나누고, 여름 캠프 때마다 같이 웃고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귀중한 여흥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노동자들을 대신해 아쉬운 소리를 듣고 그

들의 억울한 외침이 되어 주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사는 이곳의 생활 안에서, 차별과 편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께서 현존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의 의미는 사라져가고, 우리가 서로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인생의 참의미와 소중함을 나누었던 기억만 남아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체험한 엑소더스 EXODUS, 참 자유와 해방의 자리였습니다. 생존본능이라는 미명하에 저만 살겠다는 응졸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 해방의 여정에 저의 작은 발걸음을 같이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몫이라는 것을 어렵פות이 깨닫게 된 지금, 숙제처럼 안고 온 여러 질문들에 이제 막 답을 시작한 느낌입니다.

실습이라는 빛으로 이어지는 긴 터널을 저의 보폭에 맞추어 지나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순간은 감사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만큼 아쉬움도 크지만, 저의 모든 날들을 하나의 길로 이어주시며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모두를 맡겨드리며 또다시 첫서원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삶의 터전 안으로 기꺼이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필리핀 분원의 고 그라씨아 수녀님과 이 필로메나 수녀님, 필리핀에서 언어연수 중이셨던 박 세라피나 수녀님, 그리고 의정부 엑소더스의 여해동 F. 살레시오 신부님, 이경희 루시아 선생님, 쿠엔 티 김 티엔 루시아 선생님, 윤영아 섬보우 선생님, 원태린 키산나 선생님, 이상숙 사라 선생님, 강슬기 캔디 선생님,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저의 뜻내기 여정을 커다란 사랑과 관심으로 지지해주신 안 마리벨라멧다 수녀님과 수련소 가족들 그리고 모든 수녀님들께 진심을 가득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다양하게 서로 연결된...

하느님 창조물과의 '어울림'

홍 파니비노 소비녀(인천관구 첫서약자)



소비녀의 강생

자기양성계획 2차 실습지로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에서 노숙인들을 만나 거리상담을 해보기로 결정하였다. 일상에서 노숙인들을 만날 때마다 무섭고 두려워 늘 피했던 기억이 떠올라 첫 거리상담 때도 계속 예수님과 성모님께 도와 주시길 기도했다.

처음 서울역에 갔을 때, 코를 무섭게 자극하는 냄새, 지저분한 환경, 만취된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들은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거리상담을 하는 나에게 활동가 선생님들은 “주취(알코올 섭취)자 선생님들은 꼭 피해야 한다.”며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노숙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더 크게 내 마음 안에 퍼져 나갔다.

하루, 이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보니 그들의 이야기, 각자의 다른 사정들을 듣게 되었다. 처음 보는 수녀에게도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수녀님, 술을 끊는 것보다 목숨 끊는 것이 더 쉬워요.”라며 계속 되는 실패와 죄책감에 눈물 흘리는 선생님도 계셨다.

또 한번은 직장인이 회식을 했는지 만취된 상태로 서울역 앞에 누워있었다. 그것을 본 한 노숙인 선생님이 다가와 흔들어 깨우며,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하고 나에게 묻게 되었다. 자신이 길에서 생활하시기에 더 잘 아셔서 그러는 것인지, 계속 걱정하고 일으켜 세우시며 정류장까지 데려다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자신이 더 가난함에도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짜 가난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었다.

거리에서 노숙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았다. 간담 말기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시간을 거리에서 지내시는 선생님, 가능성과 열정을 가지고 활기 있게 인생을 살아야 할 나이에 우울증으로 정신을 놓고 길에서 지내는 87년생 청년, 그토록 뜨거웠던 지난 여름, 뼈곡히 들어선 고시원에서 숨 막히는 생활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마디의 말 “괜찮으세요?” 밖에 없었다.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 불평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게만 느껴졌다.

어느 날, 한 활동가 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예수님도 집은 없으셨겠지요?”

그때, 나는 “그럼요. 예수님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으셨는걸요.”라고 대답했다. 생각에 잠기셨던 선생님은 이어서 “하지만 우리 (노숙인)선생님들은 예수님처럼 오라는 곳도 없고, 누가 좋아하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못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셨다.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한 이들, 노숙인. 정신질환, 질병, 알코올 중독, 짙은 외로움, 두려움 등이 그들을 매일 휘감고 있었기에 어떤 때에는 정말 알 수 없는 무서운 상태로 돌변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어린아이처럼 손으로 하트를 그리는 모습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우리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을 때, 깊은 슬픔과 연민의 마음으로 가슴을 아팠다.

아웃리치 회의시간에 실무자 선생님은 “수녀님, 왜 노숙인 선생님들이 역 주변에 모여 계신지 아시나요?”라고 물어오셨다. 그러면서 누군가 조사한 것들을 읽어주셨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계을러서’, ‘정신이 나약해서’라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난, 야유, 어쩌면 무관심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늘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지금도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고 길에서 마주치는 많은 노숙인들, 우리가 다가와 말을 걸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발짝 다가가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편견에 사로잡힌다는 것.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만,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눈을 맞추고,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슬프고 기쁜 일상을 나누다보니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며 하느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양성계획 실습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느님 창조물과의 ‘어울림’이 없다면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먼저 눈을 맞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며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를 이룰 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로, 지역사회 안으로, 전 지구적으로 어울림이 확장되지 않을까. 어울림 속에서 관계를 맺고 진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비녀의 강생이 아닐까.

“주님의 강생을 계속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내려야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성신부님 유언서 中 -



영혼의 쉬임 : 청년 예수와 함께 하는 떼제기도 모임

청년 예수와 함께 하는 우고리 떼제기도 모임은 떼제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가 연민 가득하게 바라보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 듣고 함께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청년들을 우고리 관구 본원으로 초대합니다.

우고리 떼제기도 모임은 2018년 3월부터 시작하였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모임을 하면서, 외딴곳인 우고리까지 찾아오기 힘든 청년들을 찾아 본당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즐거움, 쉽지 않은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눈빛을 통해,

출장 떼제기도 모임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짝수 달에만 우고리에서 떼제기도 모임을 하고, 홀수 달에는 찾아가는 떼제기도 모임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북부의 변두리까지 찾아 올 힘조차 없지만, 목마름이 가득한 본당이나 단체, 어디든 불러 주시면 그곳으로 찾아가서 청년 예수들과 함께 떼제기도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우고리 떼제기도 모임 중 지구 치유 기도



낙성대동 본당 출장 떼제기도 모임

2019년 떼제기도 모임 안내 **짝수 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 의정부 관구본원**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여·남**

연락처 **박 나타나엘 수녀 010-5906-8099**

또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의정부 관구본원에서는 연중 **개별동반 피정**의 기회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피정을 원하시는 청년들도 떼제 모임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내 신앙 생활의 나침반 : 꽃숨 청년기도 모임

꽃숨지기 이서윤 베로니카



안녕하세요, 인천관구 꽃숨 청년기도 모임에서 올해 지기(대표를 '지기'로 홍보담당은 '날리기'로 부릅니다.^^)를 맡고 있는 이서윤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우선 소비녀지에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통해 꽃숨 청년기도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꽃숨 청년기도 모임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루카 10, 37) 라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천주교 미혼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 우리의 가치관을 고민하고, 조금 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톨릭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합니다. 주도자가 그달의 주제와 연결된 성경말씀을 단독방에 미리 알려주고, 직장에서 퇴근 후 한두 사람씩 모여드는 우리의 이지트 꽃숨방엔 우리 각자의 고단한 사연과 삶도 함께 모여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주제들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 특히 소외받거나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들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콜트



콜트 노동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함께 광화문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난민 문제, 사형제도, 성평등, 갑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꽃숨모임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남들은 쉽게 지나치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고, 나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라는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내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모임을 통해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꽃숨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인생에서 조금 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전에는 성당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펙 쌓기, 나의 관심사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빛날 때 비로소 저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꽃숨모임의 역할이 굉장히 큼니다.

앞으로도 우리 꽃숨 청년기도 모임이 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기를 맡고 있는 저도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꽃숨 청년기도 모임

일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8시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여·남
장소: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본원(부천)
문의: 이카니시아 수녀 010-8098-4098



생명의 나무 : 하나의 뿌리

“생명현상의 핵심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분자 수준에서
 나무와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은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명 활동을 영위함을 알 수 있다.”

- 칼 세이건, 「코스모스」, 93쪽 -

세상 만물의 모습을 한 우주, 하느님의 강생은 ‘하느님’이라는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밝혀내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 그들이 ‘신비’라고 부르는 분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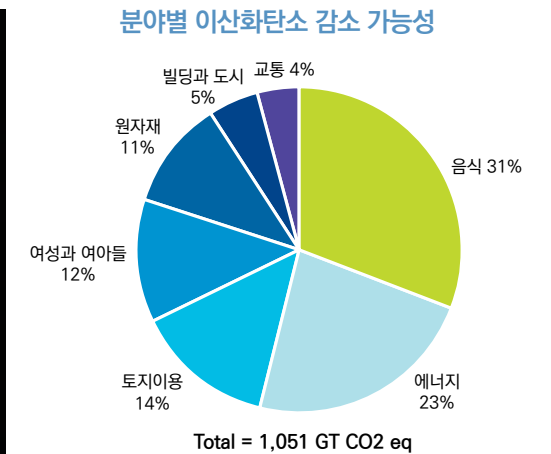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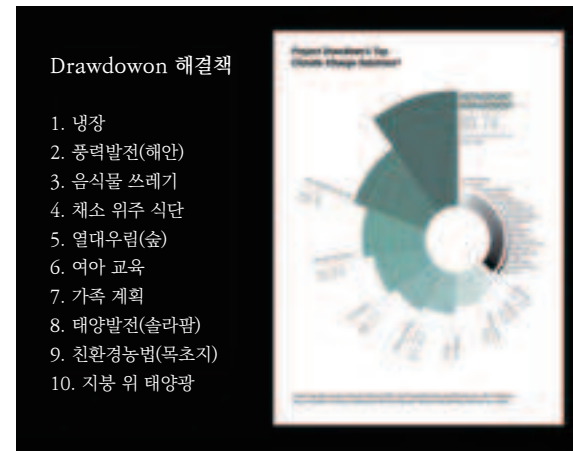
우리 공동의 집 지구,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에서
 웅기종기 모여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분자 수준에서도, DNA 수준에서도 하나라고 하니,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주적으로 확장된다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엮혀있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태초부터 하나로 연결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그들과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볼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할까요?

지구 너머, 온 우주에 가득한 하느님의 창조를 관상하며, 경탄할 줄 아는 눈과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계속되는 창조의 춤을 어우러지게 추는 소비녀들의 우주적 강생을,
 지금, 소비녀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 출처 : https://www.allposters.com/~sp/Evolution-The-Tree-of-Life-Posters_i14359620_.htm

지구 온난화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심각하게 앓고 있는 지구, ‘인류’라는 강도떼에게 초주검이 된 지구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줄 방법들을 찾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의 때 이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10가지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1위는 냉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름 한 철만 쓰는 냉방보다도 집집마다 한 대 이상 켜져 있고,
 1년 365일 쉼없이 돌아가는 냉장고를 줄이는 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
 육식을 줄이는 채소 중심 식단, 모두 음식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실천방안은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의식하면서
 줄여나갈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삶의 전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음식’의 모습을 한 우주가 ‘사람’의 모습을 한 우주 안으로 강생합니다.

냉장고 1대를 줄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소비 자본주의의 낡은 습관을 벗어던지고, 필요한 만큼 텃밭을 일구고,
 대형마트보다는 시장에서 당장 먹을 음식들만 구입하고,
 남겨지는 음식이 없도록 외식보다는 집밥을 먹는 작은 실천,
 소비녀들이 앞장서서 연구하고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 이미지 출처 : 이정규, 2018년 총원 ATD 연수 프리젠테이션 자료

경이로운..



+ 출처 : <https://www.livescience.com/32929-what-types-of-alien-planets-are-out-there.html>

소비녀들 - 입회, 청원, 착복, 종신서약, 금경축, 은경축, JMJ 입회 · 첫서약, 선종

“참된 수도자들이야말로 하느님의 표징, 징표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세상이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 설립자 성재덕 신부, 『현대사회와 수도생활』, 48쪽 -

81회
입회



마닐린, 쥘 마리아, 음 마리아, 화 마리아, 타오 아나스타시아 자매

2017년 10월 21일

82회
입회



홍 마리아, 다오 안나, 우엔 데레사, 썬언 안나, 느이 안나 자매

2018년 11월 21일

+ 소비녀들의 이름은 사진 왼쪽부터입니다.



79회
청원

최 루치아, 머 마리아, 쥘 데레사, 흥 파라 자매

2018년 2월 10일



78회
착복

김 피에타, 전 희망, 마 임마누엘 소비녀

2018년 2월 2일

2018년에는 두 번의 청원식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노비사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청원식이지만,
청원 메달을 목에 걸어주실 때의 그 벅찬 감격을 소비녀들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비녀들의 가슴팍에서 반짝거리는 성가정은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행실과 더불어 묵은 사람을 벗기시고
오직 당신 모상대로 새로이 창조하신 성덕과 의덕의 새 사람을 임해주실 것입니다.”

80회
청원



리엔 데레사, 띠엔 마리아 자매

2018년 11월 9일

+ 소비녀들의 이름은 사진 왼쪽부터 입니다.

+ 소비녀들의 이름은 사진 왼쪽부터 입니다.



“이 몸을 언약대로 붙드시옵소서. 내 살어나리다. 희망이 어긋나지 않게 하옵소서.”

70회
종신서약



고 나연베로니카, 양 테레시아, 이 피아체, 이 나타나엘, 박 나타나엘 소비녀

2018년 2월 12일

+ 소비녀들의 이름은 사진 왼쪽부터 입니다.



25회
금경축

박 라파엘, 민 다미안, 정 방그라시오 소비녀

2018년 5월 5일

부르심에 응답하며, 금빛으로 빛나는 세월을 걸어오신 수녀님들의 강생의 여정.
50L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신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소비녀들의 이름은 사진 왼쪽부터 입니다.



51회
은경축

임 안또니오, 박 빈첸시아, 최 마리오딜, 한 하상바로, 김 마누엘,
김 예수의 데레사 소비녀

2017년 10월 17일

수도여정 25년을 은색 실로 곱게 수놓은, 하느님을 위한 수녀님들의 은빛길.
반짝이는 은빛의 강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소비녀들의 이름은 사진 왼쪽부터입니다.



52회
은경축

김 도나도, 김 마리프랜, 이 효임골롬바, 김 에우제니아, 임 화경안드레아,
주 힐데가르드, 유 엘리사, 이 스테파노, 최 가롤로 보로메오, 유 에프렘,
윤 리젯, 이 도미니카, 윤 이시도로 소비녀

2018년 10월 18일

수도여정 25년을 은색 실로 곱게 수놓은 하느님을 위한 수녀님들의 은빛길.
반짝이는 은빛의 강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소비녀들의 이름은 사진 뒷줄 왼쪽부터입니다.

JMJ
입회



2018년 10월 20일



2018년 5월 1일

JMJ
첫서약



2018년 5월 1일



2018년 10월 20일

선종하시 소비녀들

2017년 9월 9일 오전 11시 34분에
향년 94세, 수도생활 69년을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종하셨습니다.

소비녀 JPIC의 선구자셨던
돌로로사 수녀님의 열정과 활기를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설립자 신부님과
하늘 소비녀들과 함께 하실 수녀님께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김 돌로로사 소비녀(1924~2017)

2018년 7월 14일 오후 8시 40분에
향년 80세, 수도생활 59년을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종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앓는 머리말을
항상 지켜주셨던 비오 수녀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기억합니다.
이제 그 수고로움을 내려 놓고
천상 배필이신 예수님과 설립자 신부님과
하늘 소비녀들과 함께 하실 수녀님께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양 비오 소비녀(1939~2018)

“결론적으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우주 비행사들보다 더 높이 날아 봅시다.
 좀 더 사랑하기 위해 하느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은 너그러운 선물이며 나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국경도 없습니다. 항상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접대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랑은 늘 요구가 많습니다.”
 - 설립자 성재덕 신부, 「종합강론집」, 246쪽 -



소비녀지 편집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소비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알려주세요!
 편집위원들이 달려갑니다.

기사제보·취재요청 : 박 루디빈 소비녀 010-2783-4164, shalom0718@naver.com
 박 나타나엘 소비녀 010-5906-8099, natheciel@gmail.com

+ 이 인쇄물(제호와 본문 제목 일부)은 포션 막걸리체를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길을 찾는 그대에게

세상에 뿌려지는 기쁨의 작은 씨앗 소비녀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희망의 푸른 종소리 소비녀
 세상의 낮은 자리 품어 안는 사랑의 작은 여종 소비녀
 성가 소비녀의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꽃숨흰나리
 모임
 (청년 성소자 모임)

일시: 매월 둘째 주 주일 오후 2시
 장소: 성가소비녀회 총원(4호선 길음역)
 문의: 전 리브가 수녀 010-2032-0455
 고 나연베로니카 수녀 010-2839-4080

꽃숨나자렛
 모임
 (여중고생 모임)

일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성가소비녀회 총원(4호선 길음역)
 문의: 전 리브가 수녀 010-2032-0455
 고 나연베로니카 수녀 010-2839-4080